국내매체 보도 동향

1 경제일반

◆ 미국·영국, 북한 기업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 미국이 한 달만에 모두 4곳의 북한 회사를 금융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핵·미사일 확산행위에 관여한 북한의 개인·단체에 수시 제재를 들어간 것으로 알려짐.

- 미국 연방관보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9월 24일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와 혜성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지부와 위장 회사들에 대해서도 제재하도록 했음.
- 조선광업개발회사는 이미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 등에 따라 미국의 제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혜성무역회사는 유엔의 대북 제재대상 리스트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국무부는 9월 2일 이란·북한·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의 제2연합무역회사와 폴레스타무역회사를 추가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음.

○ 영국 정부가 9월 발표한 금융제재 대상 명단에도 북한 주요 인사 33명과 기관 및 기업 36곳이 포함됐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2015년 10월 1일 보도했음.

- 개인은 윤호진 남천강무역회사 대표, 이제선 원자력공업상, 황석화 원자력총국 간부, 이홍섭 전 영변원자력연구소장, 한유로 조선용악산무역총회사 총사장 등 유엔 대북제재 대상 12명임.
- 현철해 군 차수,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김영춘 군 차수,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담당 비서(2014년 7월 사망), 김동원 전 39호실장 등 유럽연합(EU) 제재대상 21명도 제재대상 명단에 올랐음.
- 모두 36개의 제재대상 기관·기업 가운데 20곳은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남천강무역회사, 홍콩일렉트로닉스, 조선혁신무역회사, 조선원자력총국, 조

선단군무역회사 등임.

- 나머지 16곳은 노동당 39호실과 정찰총국, 해성무역, 광성무역, 조선국영보험회사 등 유럽연합 제재대상이임.

○ 제재 대상이 된 북한의 개인과 기관 및 기업은 보유 자금과 경제적 자산이 모두 동결되고, 금융거래도 금지됨.

○ 유럽연합은 북한의 2차 핵실험 2개월 후인 2009년 7월 열린 외무장관 회의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별도로 자체 제재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영국 정부도 대북제재를 시행하고 있음.

세계일보, "美, 한달새 北회사 4곳 제재…대북 압박 강화", 2015.10.01., 매일경제, "美·英, 北기업 4곳 추가제재…자산 동결·금융거래 금지", 2015.10.01.

◆ 김정은, 평양 정성제약종합공장 시찰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평양 정성제약종합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현지지도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당 비서, 서홍찬 인민군 상장(총참모부 작전국장),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음.

○ 김정은은 "공장에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병치료, 예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의약품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시했음.

- 그는 "설비관리를 잘하고 원료보장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며, 원료의 국산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했음.

- 그는 "해열진통제, 소화제를 비롯한 상비약품의 가짓수를 늘이고 효능을 더욱 높이는 것과 함께 약품생산과 검정, 보관, 취급에서 엄격한 규율과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음.

○ 정성제약종합공장은 국내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이 집중적으로 지원해 왔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 평양 정성제약종합공장 시찰…"상비약품 늘려라"", 2015.10.01.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 30억 달러 돌파

○ 개성공단 누적 생산액이 가동 11년 만에 30억 달러(약 3조 5,490억 원)를 넘어섰음.

- 10월 4일 통일부에 따르면 공단이 본격 가동한 2005년부터 2015년 7월까지 누적 생산액

은 29억 9,616만 달러를 기록, 30억 달러에서 384만 달러 모자랐음.

- 통일부 관계자는 "2015년 1~7월 생산액이 3억 2,642만 달러로 월평균 4,663만 달러여서 8월에 누적 30억 달러를 넘어선 게 확실시된다"고 말했음.
- 개성공단 연간 생산액은 가동 첫해인 2005년 1,491만 달러에서 2014년에는 4억 6,997만 달러로 약 31.5배 늘었음. 2010년 누적생산액 10억 달러를 넘었고, 2013년엔 20억 달러를 돌파했음.

○ 공단 입주 기업은 처음 가동 때 18개에서 7월 말 현재 124개로 늘어났음. 북측 근로자는 6,013명에서 5만 4,481명으로 아홉 배로 증가했음.

한국경제, "개성공단 누적생산 30억달러 돌파", 2015.10.04.

◆ 북한, 함북 경원군 일부 경제개발구 지정

○ 북한이 함경북도 경원군 류다섬리 일부 지역을 경원경제개발구로 지정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0월 8일 발표됐다고 보도했음. 경원경제개발구는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국경을 맞댄 지역에 있음.

○ 북한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제정한 뒤 전국 각지에 경제개발구를 지정,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부여해오고 있음.

연합뉴스, "북한, 함북 경원군 일부 경제개발구 지정", 2015.10.08.

◆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 개최

○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음.

- 북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10월 10일 오후 3시(북한 시간 2시30분)부터 5시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육·해·공군과 노농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 행사 등을 실황중계했음.
-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왼편에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섰고, 오른쪽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했음.
-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을 중앙으로 좌측(김 제1위원장 기준)에는 류윈산 상무위원 옆에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당 비서와 조연준 당 부부장이 위치했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의 우측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 옆으로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원홍 국

가안전보위부장, 서홍찬 군 상장, 조남진 중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등의 순으로 자리를 잡았음.

- 여기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부부장도 자리를 함께 했으나 헌법상 국가수반인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25분간의 열병식 육성연설을 하였음. 연설에 이어 2만여 인민군의 열병 행진이 진행됐음.

- 행진에서는 소형화 핵탄두를 탑재했다는 KN-0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300㎜ 신형 방사포가 처음 공개됐고 2013년 정전협정 60주년 기념 열병식에 처음 등장한 '핵배낭' 마크 보병부대도 다시 등장해 눈길을 끌었음.

- 북한이 5월 발사에 성공했다는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은 공개하지 않았음.

○ 이번 열병식은 2011년 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섯 번째임.

- 앞서 2012년 김정일 국방위원장(2월 16일)과 김일성 주석(4월 15일) 생일, 2013년 정전협정 체결 기념일(7월 27일)과 정권 수립 기념일(9월 9일)에 열렸음.

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사상 최대 규모(종합2보)", 2015.10.10.

◆ 북한, 도시농촌 빈부격차 크다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는 10월 15일 북한 도시와 농촌의 빈곤 차이가 중국이나 몽골 등 다른 동아시아 국가보다 크다고 분석했음.

○ FAO는 동아시아 식량부족 상태 국가로 북한, 중국, 몽골을 꼽으며 이 가운데 북한의 상태가 가장 나쁘다고 평가했음.

- FAO가 최근 발표한 세계식량농업백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4명 중 1명이 영양부족상태인 저체중으로 동아시아에서 빈곤 문제가 가장 심각함.

- 보고서는 북한 농촌 지역에서 4명 중 1명인 27%의 어린이가 저체중인 반면, 도시는 7.6명에 1명인 13%임을 알리며 도·농간 빈곤격차의 심각성을 지적했음.

○ 세계식량농업백서는 농업에 종사하는 북한 주민을 300여만 명으로 추산하며 여성이 절반에 가까운 46.5% 수준이라고 소개했음.

- 전체 인구 대비 농민은 23년간 약 15% 감소했고, 1990년 전체 북한 인구 3명 중 1명이 농민이었으나 최근에는 5명 중 1명 수준으로 줄었음.

연합뉴스, "북한, 도시농촌 빈부격차 크다", 2015.10.15.

◆ 김정은, 미래과학자거리 시찰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완공된 미래과학자거리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1일 보도했음.

- 이날 시찰에는 황병서 군총정치국장, 김기남·김양건·오수용 당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마원춘 소장도 함께했음. 현지에서는 인민무력부 부부장인 김정관 중장 등 해당 부문의 일꾼들이 맞이했음.

○ 미래과학자거리에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500여 세대의 고층, 초고층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 등 현대적인 공공과 봉사건물을 건설했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 준공된 미래과학자거리 시찰", 2015.10.21.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북한돈 100억 원 투입

○ 북한은 최근 평양 중심부에 완공한 대규모 주택단지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을 위해 북한돈으로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10월 21일 보도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미래과학자거리 시찰 사진 배경에 나온 공사 현황판을 분석한 결과, 이 주택단지 건설에 모두 99억 5,940여만 원이 투입됐음.
- 총 부지 면적 38만 9,500여㎡, 연 건축 면적 87만 6,750여㎡ 크기의 이 단지에는 주택 19개 호동(호수에 따라 나뉘는 건물) 2,584세대, 상업편의시설 17개 호동 153개 단위, 공공건물 11개, 하부시설물 43개가 들어섰음. 또 살림집 16개 호동, 공공건물 5개가 개건보수됐음.

○ 대동강변에 자리한 미래과학자거리의 수해 예방을 위해 1,540여m에 달하는 호안공사(침식을 막기 위한 공사)도 진행됐음. 이 주택단지 건설에는 시멘트 30만 3,700여 톤이 사용됐음.

연합뉴스,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건설에 북한돈 100억원 투입", 2015.10.22.

◆ 김정은, 새 지하전동차 개발 기업소 현지시찰

○ 북한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가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맞춰 지하전동차를 개발했음. 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현지시찰에 나섰음.

- 앞서 7월 김 제1위원장은 김종태전기기관차연합기업소를 방문해 첨단기술을 도입한 전기기관차와 지하전동차 신규 개발을 지시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10월 23일 보도에 따르면 그는 "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며 "10월 10일(당 창건 기념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음.

한국경제, "북한, 새 지하전동차 개발…김정은 공장 시찰", 2015.10.23.

◆ 김정은, 과학기술전당 현지지도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평양 쑥섬에 새로 건설된 '과학기술전당'을 현지지도 했다고 10월 28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새로 완공된 과학기술전당이 10만 6,600㎡의 연건축면적에 지어졌다며 "지식경제의 시대인 21세기에 최신 과학기술보급 거점"이라고 말했음.
- 김 제1비서는 전자도서관, 숙소 등 과학기술전당 곳곳을 둘러본 뒤 "당 창건 일흔돌을 경축한 뜻 깊은 10월이 날마다 흥하는 내 조국에 기쁨을 더해주는 10월로 됐다"고 큰 만족을 표하기도 했음.

○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봉주 내각 총리, 김양건·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마원춘 당 부부장이 동행했음.

뉴스1,"北 김정은, 과학기술전당 찾아 "최신 과학기술 보급 거점"", 2015.10.28.

◆ 김정은, 평양 메기공장 시찰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현대화 설비를 새로 갖춘 평양 메기공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10월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김 제1비서가 앞서 2014년 12월 이곳을 찾아 생산량 확대를 위한 과업을 제시한 뒤 이번에 다시 이곳을 찾았다고 설명하고 생산 목표를 이뤘다고 전했음.
- 통신은 1년 간 50여 개 설비 및 건물에 대한 개선 및 신축공사가 진행됐으며 9월 10일 당 창건 70년 기념일 전 공사가 완료됐다고 덧붙였음.

○ 김 제1비서는 "공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며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재부가 마련됐다"고 만족을 표했음.

- 또 "한해 생산량이 900여 톤밖에 안되던 공장에서 2015년에 1,800여 톤의 메기를 생산하는 놀라운 성과를 이룩했다"고 말했음.

○ 김 제1비서의 메기공장 시찰에는 박봉주 내각 총리, 오수용 노동당 비서,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 수행했음.

뉴스1, "北 김정은, '생산량 2배' 평양 메기공장 시찰…'흡족'", 2015.10.31.

◆ 2014년 북한의 관광 수입, 최대 500억 원으로 추정

○ 북한이 2014년 관광사업으로 벌어들인 외화수입이 최대 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음.

- 윤인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문연구원은 11월 1일 '김정은 시대 북한의 관광산업 평가 및 전망' 논문에서 2014년 북한의 관광 수입이 최소 3,069만 달러(한화 약 350억 원)에서 최대 4,362만 달러(한화 약 49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음.
- 이는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얻는 한 해 평균 수입인 8,600만 달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임. 국적별로는 중국인 관광객 수입이 2,169만~3,462만 달러, 러시아 등 서구권 관광객 수입은 900만 달러로 추산됐음.
- 윤 연구원은 2014년 북한을 찾은 관광객 수(중국인 9만 5,000여 명, 서구권 5,000여 명)에 관광 상품 가격을 곱한 뒤 여행사 평균 수수료 10%를 제하는 방식으로 관광 수입액을 산출했음.

경향신문, ""북한, 2014년 관광수입 최대 500억원"…개성공단 수입액 50%", 2015.11.01.

◆ 북한,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시작

○ 북한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를 유치하기 위해 북·중 접경지역 관광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5일 보도했음.

- RFA는 지난 9월 북한 상공을 촬영한 최근 위성사진을 분석하면서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중국 투먼시의 (50억 위안, 한화 약 8,900억 원) 투자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라며 "2013년 12월 투자협정에 합의한 뒤 1년간 움직임이 없다 최근 새 도로가 뚫리고 기존 도로를 보수하는 등 변화가 감지됐다"고 밝혔음.
- 2014년 10월부터 2015년 8월 사이 온성섬 관광개발구 남쪽에 동서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건설됐고, 기존도로는 새 단장을 하는 기초공사가 이뤄졌다고 방송은 설명했음.

○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에 위치한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둘레 2.5km, 면적은 930만 평 규모로 개발되며, 골프코스와 수영장, 승마장, 레스토랑 등이 들어설 예정임.

- '온성섬 관광개발구'는 북한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발표한 경제특구 가운데 하나로

중국 투먼시가 총 50억 위안을 투자해 오는 2020년 완공할 예정임.

- 북한의 온성섬 관광개발은 일차적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임.

연합뉴스, "북한, 접경지역 관광개발 속도…"중국인 관광객 겨냥"", 2015.11.05, 노컷뉴스, "北, 함경북도 '온성섬 관광개발구' 개발 시작", 2015.11.05.

◆ 북한, 미래과학자거리 입주 시작

○ 북한이 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건설한 미래과학자거리에 입주가 시작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4일 보도했음.

- 통신은 "김정은 제1비서가 평양시내 교원과 연구사들에게 안겨준 살림집 이용증서를 수여하는 모임이 11월 3일에 진행됐다"고 전했음. 모임에는 최태복 당 비서와 김수길 평양시 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대학일군, 교원, 연구사 등이 참석했음.

○ 미래과학자거리에는 김정은 제1비서의 지시로 500여 세대의 53층인 초고층 살림집과 탁아소, 유치원, 편의봉사망 등 현대적인 건물을 건설했음.

노컷뉴스, "北 "미래과학자거리 새집들이 시작"", 2015.11.05.

◆ 독일 도이체방크, 북한과 금융거래 금지

○ 불법 돈세탁 관련 조사를 받아온 독일의 거대 투자금융사인 도이체방크가 북한을 거래금지 국가에 포함시켰다고 11월 1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RFA가 최근 입수한 도이체방크의 2015년 상반기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이체방크는 보고서에 "금융 위험국가와 거래를 중단하고 새로운 사업도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과도 거래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음.
- 보고서는 또 "미국 연방과 주 정부의 법률 준수 여부를 조사 받고 있다"며 "미국의 금수조치 법에 따라 미화로 결제하는 해당 지역과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음.

○ 앞서 뉴욕주 금융감독청(NYSDFS)은 지난 11월 4일 도이체방크가 미국 연방정부의 제재대상인 국가의 개인 또는 기관과 금융거래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주 정부와 금융당국에 2억 5,800만 달러(약 2,935억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고 밝혔음.

○ 도이체방크는 미국 연방정부의 제재대상인 이란과 리비아, 시리아, 미얀마, 수단 등의 금

융기관 또는 개인에 1999년부터 8년간 2만 7,200여건의 거래를 한 혐의로 미국 금융당국의 수사를 받아왔음.

뉴스1, "독일 도이체방크 "북한과 금융거래 하지 않겠다"", 2015.11.12.

◆ 북한, 나선경제특구 18조 투자 예정(주장)

○ 북한이 11월 18일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모두 154억 8,068만 달러(약 18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음.

○ 북한 대외 매체인 '내나라'가 11월 18일 공개한 '나선경제특구 종합개발계획'을 보면 산업구 9군데 개발에 92억 1,693만 달러(10조 8,000억 원), 관광지 10군데에 62억 6,375만 달러(7조 3,000억 원)를 투입하기로 했음.

- 나진항물류산업구(8㎢)를 조성해 해상수송과 중계무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현대화된 부두와 상하선시설을 개발하기로 했음.
- 신흥경공업구(0.54㎢, 2억 7,243만 달러)는 나선지역의 유리한 지리적 위치와 노동력 조건을 이용해 식품, 피복, 가구, 컴퓨터장치, 집적회로, 반도체소자조립 생산을 중심의 첨단산업구로 개발하기로 했음.
- 안화, 동명개발구(0.7㎢, 3억 5,315만 달러)는 시내 중심지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 환경오염이 없는 경공업과 현대상업구역으로 개발할 계획을 세웠음.
- 안주국제상업구(3㎢, 12억 1,320만 달러)는 바닷가를 따라가며 야산과 평지로 형성된 지리적 특성을 이용해 금융 및 상업을 기본으로 하는 현대 상업구역을 만들기로 했음.
- 관곡공업구(1.65㎢, 2억 542만 달러)는 원유화학공업구를 조성하기로 했음.
- 백학공업구(22㎢, 44억 9,900만 달러)는 경공업설비제작업과 첨단기술공업, 강철공업, 건재공업 중심의 종합 공업구를 개발함.
- 웅상개발구(4.37㎢, 17억 6,766만 달러)는 건재산업구를 개발하기로 하고 주로 강제, 시멘트, 건축유리, 자동차유리, 가소재, 건축타일, 위생자기 등 건재공업과 제지, 가구, 연필, 합판 등 종합적인 목재가공업을 입주시키기로 했음.
- 구룡평, 굴포개발구(2.09㎢, 8억 4,540만 달러)는 첨단기술산업구와 농축산물가공공업구를 건설하기로 하고 주로 컴퓨터 조립, 통신설비, 세탁기, 냉장고, 소형전기제품 등을 생산하며 양곡, 버섯, 채소, 축산물 등을 가공업을 진행하기로 했음. 굴포지역에는 새품종, 새기술, 새설비를 도입한 고효율 유기농업, 굴포철새생태관광구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음.
- 두만강개발구(0.15㎢, 6,067만 달러)는 경공업구를 건설해 주로 방직, 신발, 식료가공, 일

용공업품 등을 건설해 러시아와의 물류지역으로 조성하기로 했음.

○ 관광지개발은 비파섬생태관광구, 추진휴가 및 별장촌, 해상금광광지구, 신해국회의구, 창진동식물원, 갈음단해수욕장, 응상해양체육관광지, 우암해양제육관광지, 사향산등산관광지, 소초도유람선관광지 이렇게 10군데 지역에 조성할 계획임.

노컷뉴스, "北,'나선경제특구' 18조 투자…계획과 전망은?", 2015.11.18.

◆ 김정은, 대동강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시찰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대동강에 새로 설치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18일 보도했음.

-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에는 오수용 당 비서와 조용원 당 부부장이 동행했으며, 현장에는 김수길 평양시 당 책임비서가 맞이했음.

○ 통신은 "김 제1비서가 대동강을 비롯한 강과 호수에 그물우리양어를 대대적으로 만들도록 지시했으며, 평양시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대동강에 현대적이고 자동화된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을 만들었다"고 소개했음.

- 대동강의 옥류교와 능라도 사이에 띄워놓는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은 면적이 1,600여 ㎡에 여러 종류의 물고기를 기를 수 있는 그물우리와 종합조종실, 사료창고, 휴게실 등을 갖추고 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 대동강 '이동식그물우리양어장' 시찰", 2015.11.18.

◆ 이집트 오라스콤, 북한 고려링크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

○ 북한 이동통신사 고려링크의 최대 주주인 이집트의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사로 전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월 19일 보도했음.

- 오라스콤은 지난 2008년 북한 체신성과 함께 출자해 고려링크를 설립했음. 지분은 오라스콤이 75%, 체신성이 25%임.
- 오라스콤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오라스콤이 국제 사회의 제재로 북한 내 수익금을 달러로 바꿔 이집트로 보내지 못해 수익을 제대로 챙길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 북한 당국이 직접 운영하는 이동통신업체 '별'과의 경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점도 또 다른 이유로 꼽았음.

○ 전문가들은 VOA에 "오라스콤이 북한에 고려링크의 지분을 팔고 사업을 접을 것으로 전

망된다"며 "그러나 경제난으로 외자 유치에 진력하는 북한이 오라스콤의 현금 반출을 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말했음.

연합뉴스, "이집트 오라스콤, 北 고려링크 계열사→협력사로 전환", 2015.11.19.

◆ 김정은, 군 수산사업소 시찰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인민군 제313군부대 산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통신은 "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가 현대적으로 개건됐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 수천 톤의 도루메기를 잡았다는 보고를 받고 김 제1비서가 이곳 수산사업소를 또다시 찾았다"고 말했음.
- 김 제1비서는 수산사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고 "이번 겨울철 집중어로전투기간에 하루 동안에만도 지난 시기 한해 생산량과 맞먹는 물고기를 잡은 데 대해 소리쳐 자랑할 만 한 성과이라고 대단히 만족해했다"고 통신은 전했음.

○ 김 제1비서의 현지지도에는 조용원 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과 조남진 중장, 지난 11월 20일 8개월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낸 한광상 노동당 재정경리부장이 동행했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 군 수산사업소 시찰…"대규모 어획량에 큰 만족"", 2015.11.23.

◆ 김정은, 122호양묘장 현지지도

○ 북한 김정은 제1비서가 인민군 122호양묘장을 현지지도하고 양묘장을 현대화할 것을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월 3일 보도했음.

- 김 제1비서의 시찰에는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오수용 당 비서,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이 동행했음.

○ 김 제1비서는 양묘장을 둘려보고 군대와 사회의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에서 산림조성과 보호사업이 갖는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애국심을 더욱 분발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을 벌려야 한다고 말했음.

- 이어 122호양묘장을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자동화, 기계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세계적인 양묘장으로 꾸리자고 강조했음.

노컷뉴스, "北 김정은,122호 양모장 시찰…황병서 22일만에 등장", 2015.12.03.

◆ 전력 생산이 이뤄지지 않는 북한 희천발전소

○ 북한이 김일성 주석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강성대국'의 상징으로 건설한 희천 1호발전소가 3년 넘도록 전력생산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2월 4일 보도했음.

- RFA는 이날 북한 주민과 대북 소식통 등의 증언을 토대로 "2012년 4월 완공한 희천 1호발전소에서 전기가 전혀 생산되지 않고 있어 주민들 속에서 의문이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음.

○ 북한 자강도 용림군의 장자강 유역과 희천시의 청천강 유역에 건설된 희천 수력발전소는 30만 ㎾의 전력을 생산해 평양시내로 송전하도록 추진됐음.

- 장자강 상류를 막아 용림댐을 쌓고 희천 1호발전소를 거쳐 30㎞ 떨어진 희천 2호발전소 주변 청천강 상류로 물을 떨어뜨려 전기를 생산하는 유역변경식으로 가동됨.

○ 이 방송은 "인민군 수만 명을 동원해 완성한 희천 1호발전소에서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구체적인 이유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음.

- 최근 평양을 다녀온 북한 주민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평양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주변 구역에는 다른 발전소에서 제공되는 전기가 하루 3시간 정도 오고 있다"고 주장했음.

연합뉴스, ""북한 '강성대국' 상징 희천발전소 전력생산 없어"〈RFA〉", 2015.12.04.

◆ 북한 1인당 GNI 139만원, 한국의 21분의 1 수준

○ 통계청은 북한 관련 통계를 수집해 남북한 통계자료를 함께 수록한 '2015년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를 12월 15일 발표했음. 인구, 경제, 자연환경, 남북한 교류 등 14개 부문 131개 통계표를 담았음.

○ 2014년 기준 북한 인구는 2,466만 2,000명으로 한국(5,042만 4,000명)의 절반을 밑돌았음. 북한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23조 2,360억원으로 한국(1,496조 6,000억원)의 44분의 1, 1인당 GNI는 139만원으로 한국(2,968만원)의 21분의 1 수준이었음.

한국경제, "북한 1인당 GNI 139만원…한국의 21분의 1 수준", 2015.12.15.

◆ 남북,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상 놓고 이견

○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측 기업이 2015년도부터 북측에 내야 하는 토지 사용료와 관련한 협상이 2015년을 불과 약 일주일 남겨둔 상황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음.

- 정부는 2015년 12월 21일 토지 사용료와 관련해 기업 측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음.
- 박수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현재 남북 간에는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국제수준 그리고 개성공단 특수성 등을 설명하면서 우리 측은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북한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음.

○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 15조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함. 따라서 입주기업은 2015년부터 토지사용료를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함.

- 이에 따라 남북은 2014년 11월부터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를 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으나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토지 사용료를 적용하는 범위에 대해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330만㎡(100만평)에 대해 모두 토지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우리 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 이용하는 토지 92만㎡(28만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1단계 토지의 경우 개성공단사업을 시작하면서 남측 기업이 분양을 모두 받기는 했지만 대북 제재인 5·24 조치 등 남북관계 악화로 시설투자를 못 해 실제 생산시설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임.
- 토지 사용료 요율도 북측은 분양가의 2% 수준인 1㎡당 1달러를 제시한 반면 남측은 그 절반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음.

이데일리,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 협상 올해도 넘기나", 2015.12.21.

◆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타결 – 2015년부터 연간 53만 달러 납부

○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북한당국에 임대료 명목의 '토지사용료'를 내기로 했음. 남북당국은 토지사용료를 분양가의 1.56%인 ㎡당 0.64달러(약 750원)로 합의했음.

- 통일부는 2015년 12월 24일 우리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개성공업지구 토지사용료 기준에 관해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음.

○ 개성공단 1단계 부지 330만㎡(100만평)의 분양가인 3.3㎡당 14만9000원(㎡당 4만5000원)의 약 1.56%에 해당하는 금액임. 관리위와 총국은 2015년 11월부터 토지사용료율을 놓고 논의해왔음.

○ 남북은 중국 충칭 용흥공업원(㎡당 1.6달러), 칭다오 생태원(㎡당 0.64달러), 베트남 빈증

-싱가포르 공단(㎡당 0.84달러) 등의 사례를 참고해 요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의 특수성과 국제적 기준 및 기업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고 말했음.

○ 남북은 앞으로 4년마다 관리위와 총국의 협의를 통해 토지사용료를 조정하기로 했음. 인상 폭은 직전 토지사용료의 2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음.

○ 토지사용료 부과 대상은 우리 측 주장에 따라 '실제 생산과 상업 활동이 이뤄지는 토지'로 제한됐음.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인 330만㎡ 전체에 대해 토지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한발 물러서 우리 측 방침을 수용했음.

한국경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타결…올해부터 연간 53만달러 납부", 2015.12.24.

1.1 대외무역

◆ 중국, 단둥시 궈먼항 무관세 '호시무역구' 개장

○ 북-중 간 교역의 중심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시 궈먼항에 무관세 교역을 위한 '호시무역구'가 10월 15일 개장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를 벌이고 있음.

○ 중국 랴오닝성은 "단둥시 외경무국과 검사검역국, 세관 등 각 부문별 책임자들이 9월 29일 '호시무역구'에 대한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음.

- '호시무역구'에는 이미 2만 4,000㎡에 이르는 부지에 상품 전시·교역 공간과 창고, 주차장, 검역소 등이 들어섰으며, 점포 입점률이 50%를 넘는다고 말했음.

○ 단둥 호시무역구는 북-중 양국의 국경 20㎞ 이내에 사는 변경지역 주민들에게 증명서를 제시하면 하루 8,000위안(약 125달러)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관세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임.

노컷뉴스, "中, 단둥시 궈먼항 무관세 '호시무역구' 15일 개장", 2015.10.03.

◆ 2015년 북-미 교역액 전년대비 20% 수준

○ 2015년 북미간 교역액이 2014년 같은 기간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0월 7일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5년 1~8월 미국과 북한간 교역액은 440만 달러(51억여 원)로 2014년 같은 기간 1,990만 달러의 22%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음.
- 이 교역액 전액은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것으로, 대부분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지원과

관련된 것임.

- 교역액의 85%가 넘는 375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음. 이밖에 기타식품 45만 달러, 전자제품 10만 달러, 닭 등 가금류 수출이 5만 6,000 달러를 차지했음.

○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의 일환으로 식량과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무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연합뉴스, "올해 북미 교역액 50억원…작년 20% 수준", 2015.10.07.

◆ 중국 단둥, 북중박람회 개막 및 호시무역구 개장

○ 북한과 중국이 공동 개최하는 유일 종합박람회인 '중·조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북·중 박람회)가 10월 15일 중국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신개발지 궈먼(國門)항 광장에서 개막했음.

○ 10월 18일까지 계속되는 2015년 박람회는 처음으로 양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국가급 행사로 격상됐음.

- 북한은 무역성, 외무성, 국제전람사, 만수대창작사, 투자합영위원회 등으로 400여 명(무역대표 300명 포함)의 확대대표단을 꾸렸고, 총 100개 기업을 참가시켰음. 북한기업들은 이번 박람회에 꿀이나 말린 낙지(오징어) 등 농수산 가공품과 건강식품, 금당 주사약 등 의약품, 공예품 등을 출품했음.

- 중국 측도 국가국제무역촉진위원회, 상무부, 외교부, 문화부, 여유(관광)총국 등 중앙 부처가 랴오닝성 정부와 공동으로 박람회를 주관하도록 했음.

○ 궈먼항 광장에는 북·중 변경 주민들이 관세 없이 국경무역을 할 수 있는 호시(互市)무역구도 개장했음.

- 호시무역시장은 8,000위안(약 140만원) 미만의 무역거래에는 관세와 부가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일종의 소규모 자유무역 시장임.

- 호시무역구 측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무역구는 북·중 무역을 심화하는 민간 차원의 새로운 플랫폼"이라며 "북한 기업들은 2016년 4월 입주할 예정이며 송이, 인삼 등 농산·해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연합뉴스, "'北中 해빙 첫 행사' 단둥 북중박람회 개막…호시무역구 개장(종합)", 2015.10.15, 뉴스1, "중국 단둥서 북-중 박람회 개막…호시장도 개장", 2015.10.16.

◆ 중국 경기 둔화로 북한의 대중 수출 감소

○ 북한이 중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북한 당국은 자금난 심화로 정권을 지탱해 주는 핵심 계층에 대한 생활지원이 줄어들면서 김정은 정권의 취약성이 증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중국 수출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애쓰고 있다고 보도했음.
-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자금난이 한층 심화한 것으로 보고 있음.
-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한의 대외 수출 중 대중 수출 비율은 2000년대 초에는 50%였으나 현재 90%에 이를 정도로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음.

한국경제, "[한경 Issue & Focus] 북한,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 급감", 2015.10.15.

◆ 북한-EU 2014년도 무역액, 2013년 대비 76% 감소

○ 북한과 유럽연합(EU)의 2014년 무역액이 2013년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2014년 북한과 EU의 무역액은 3,500만 유로(436억여 원)로 2013년 1억 4,600만 유로(1,819여억 원)보다 76% 줄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4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대북한 교역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이는 북한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물 거래가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RFA는 설명했음.

○ 2013년의 경우 북한 광물의 EU 수출액이 9,900만 유로(1,233억여 원)로 전체 EU수출액 1억 1,700만 유로(1,458억여 원)의 84.6%를 차지했음.

○ 2014년 북한의 대(對) EU 무역은 수출 1,800만 유로(224억여 원), 수입 1,700만 유로(212억여 원)로 각각 집계됐음. 이에 따라 2014년 북한은 EU의 183번째 수출 상대국이자 161번째 수입 상대국이었음.

- 북한이 EU에 수출한 주요 품목은 기타 가공품 900만 유로(112억여 원), 화공품 400만 유로(49억여 원), 중장비와 차량 부품류 200만 유로(24억여 원), 공산품 100만 유로(12억여 원) 등임.
- 북한이 수입한 품목은 중장비와 차량부품 500만 유로(62억여 원), 식품과 동물 400만 유로(49억여 원), 화공품 300만 유로(37억여 원) 등의 순임.

세계일보, "북한·EU 2014년 무역 76% 감소…"북 광물수출 중단 탓"", 2015.11.04.

◆ 2015년 북미 무역액 전년 대비 80% 감소

○ 북한과 미국의 2015년 무역이 2014년보다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1월 5일 미국 상무부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미국의 무역액이 448만 8,000달러(51억여 원)로, 2014년 같은 기간 2,190만 달러(248억여 원)보다 79.5% 줄었다"고 보도했음. 두 나라의 무역액은 전적으로 미국이 북한으로 수출한 금액이며, 수입액은 전혀 없음.

○ 미국 정부는 대북 제재 정책으로 식량이나 의약품 등 인도적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품의 대북 수출과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2015년 대북 수출 품목을 보면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이 383만 7,000달러(약 43억 원)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음. 이어 식품 45만 달러(약 5억 원), 전자제품 10만 달러(약 1억 원), 가금류 5만 6,000달러(6,000만여 원) 등 순임.

연합뉴스, "북한-미국 2015년 무역 80% 감소…美 대북 수입은 '제로'", 2015.11.05.

◆ 북한, 대중 무역·투자·인적 교류 감소 추세

○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양국의 물적·인적 교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음. 11월 11일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간의 무역, 투자, 인적교류는 최근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고 언급하였음.

○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이하 중국 통계 기준)은 2년 연속 감소했음.

- 대중국 수출은 지난 6월 말까지 11억 7,000만 달러에 그쳐 2014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6% 줄었음. 같은 기간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금액도 13억 3,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8% 내려앉았음. 이는 석탄 등 자원류의 가격 하락으로 대중국 수출이 부진한 가운데 섬유류 관련 가공무역도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됨.

○ 북한의 대중국 투자액은 2014년 29만 달러에 그쳤음.

- 대중국 투자액은 큰 규모는 아니지만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고, 지난 2013년에는 역대 최고인 268만 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음. 2014년 대중국 투자액은 최근 10년간 집계한 수치 가운데 가장 낮음.

○ 중국의 대북한 투자액도 비슷한 추세임.

- 2012년 1억 946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급감하면서 2014년에는 5,914만 달러로 2년 만에 절반으로 줄어들었음.

○ 증가세를 보이던 중국 방문자 수도 2년 연속 감소했음.

- 북한의 방중인원은 지난 2013년 20만 7,000명으로 최고였지만, 2014년 18만 4,000명으로 10.7% 줄었고, 2015년 상반기에는 8만 8,000명(2.3% 감소)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 다만 2015년 상반기 중국을 방문한 북한인 가운데 근로자의 수는 4만 7,000명으로 전년대비 7.5% 증가했음. 북한이 관광, 회의 등과 관련한 교류인원은 줄이면서도 외화수입을 늘리려고 근로자 파견은 늘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됨.
- 2015년 상반기 중국에 입국한 외국인 1,236만 명 가운데 근로자의 비중이 13.0%라는 점과 비교하면 북한 근로자의 중국 방문 수치는 더욱 두드러짐.

연합뉴스, "북한 대중국 무역·투자·인적교류 모두 감소세", 2015.11.11.

◆ 북한-태국, 2015년 무역액 전년대비 28% 감소

○ 북한과 태국의 2015년 무역액이 2014년보다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월 3일 코트라 통계 자료를 인용해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북한과 태국 간 무역 금액이 6,276만 달러(730억여 원)로 2014년 같은 기간 8,770만 달러(1,020억여 원)보다 28.4% 줄었다"고 보도했음.
- 이는 고무를 중심으로 한 태국의 북한 수출이 대폭 감소했기 때문임.

○ 2015년 들어 9개월간 태국의 북한 수출은 5,697만 달러(662억여 원)로 2014년 같은 기간 7,815만 달러(909억여 원)보다 2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방송은 설명했음.

- 태국의 주요 대북 수출 품목은 고무와 과일류, 철광 제품 등이었음.

○ 태국의 2015년 대북 수입은 39%가량 줄었으며, 주요 수입품은 기계류와 금속제품, 섬유류 등이었다고 방송은 전했음.

연합뉴스, ""북한-태국 2015년 무역 28% 감소"〈VOA〉", 2015.12.03.

◆ 북한의 대중 무역의존도 심화

○ 5·24 대북 제재조치 발효 후 북한의 대(對)중국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수영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2월 4일 통일준비위원회가 주최한 '북한경제 변화와 남북경협 추진전략' 세미나에서 발표한 '최근 북한경제의 현황과 전망' 자료를 통해 "북한의 2014년 무역액 68억 6,000만 달러 가운데 90.1%가 대중국 무역"이라며 이같이 분석했음.

- 2009년 북한 무역의 중국 의존도는 78.5%였지만, 5·24 제재조치가 발효된 2010년에는 83.0%, 2011년에는 88.6%까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음. 2012년과 2013년에는 각각 88.6%, 88.3%를 기록했음.

한국경제, "북한, 대(對)중국 무역의존도 90% 넘었다", 2015.12.04.

◆ 미국, 주요 불법 무역국 중 하나로 북한을 지목

○ 미국이 북한을 위조 담배 생산과 밀무역 등 불법 무역을 자행하는 주요국 중 하나로 지목했다고 12월 8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RFA는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이 공동으로 발행한 '국제 불법 담배무역-국가 안보의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음.

- RFA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북한에 대해 "위조 미국 담배의 주요 생산국"이라며 "중국을 거쳐 미국으로 이를 밀반입하기도 했다"고 기술했음.
- 보고서에는 FBI가 지난 2005년 진행한 대대적 중국 밀수단 검거 사건인 'Smoking Dragon and Royal Charm' 작전을 언급하며 "당시 작전을 통해 북한에서 생산된 4,000만 달러 상당의 위조품의 경로를 파악한 바 있다"는 내용도 담겨있다고 RFA는 전했음.

○ 법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2002년에서 2005년 사이 미국 담배인 말보로를 위조해 만든 북한산 가짜 담배가 적발된 건수가 1,300회에 이른다"고 밝히기도 했음.

뉴스1, "美 "北, 가짜 담배 생산하는 불법 무역 주요국"-RFA", 2015.12.08.

◆ 북한, 이란 재제 해제 이후 원유 수입 증가 예상

○ 미국이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함에 따라 이란이 북한으로 원유 수출이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미국 의회조사국(CRS)은 12월 7일 '이란의 외교 정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15년 타결된 이란 핵합의(JCPOA)가 이란의 외교 정책에 주는 영향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음.

○ 이 보고서의 케네스 카츠맨 의회 조사국 중동 연구원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중국이 이란과 다른 몇몇 국가로부터 더 많은 원유를 사들이고 있으며, 이 원유가 북한으로 재수출되고 있다"고 주장했음.

- 카츠맨 연구원은 "상당량의 추가 이란 원유가 북한으로 갈 수 있다"면서 "중국을 통한 간접 구매, 그리고 북한의 직접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음.

노컷뉴스, "美 이란 재제 해제…北 원유 수출 증가 예상", 2015.12.08.

◆ 2015년도 북미 교역액, 2014년의 21% 수준인 54억 원

○ 2015년 북한과 미국 간의 교역액이 2014년에 비해 크게 줄었음.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9일 미국 상무부 통계를 인용해 2015년 1~10월 북미 간 교역액은 460만 달러(54억여 원)로, 2014년 같은 기간 2,190만 달러의 21%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음.

- 이 교역액은 전액 미국이 북한에 수출한 것으로, 대부분 미국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된 것임. 교역액의 85%가 넘는 390만 달러가 '민간기구가 구호 또는 자선으로 제공한 지원 품목'으로 분류됐음. 이밖에 기타식품 45만 달러, 닭을 비롯한 가금류 수출이 5만 6,000달러로 집계됐음.

연합뉴스, "2015년 북미 교역액 54억원…2014년 21% 수준〈VOA〉", 2015.12.09.

◆ 러시아, 북한에 사료용 건초 첫 수출

○ 러시아가 북한에 사료용 건초를 처음으로 수출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방송이 2015년 12월 25일 자국 관세청과 화물운송회사 ISC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음.

○ 이 회사는 이날 자료를 통해 "2015년 11월 극동 철도를 통해 528톤 가량의 연해주 건초를 북한 농업 회사로 운송했다"고 밝혔음.

○ 화물은 러시아 프리모르스키시 시비리체보 역에서 출발, 북러 접경지역 철도역인 하산을 통과해 평양에 도착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음.

연합뉴스, ""러시아, 북한에 사료용 건초 첫 수출"〈러방송〉", 2015.12.25.

1.2 대외교류 및 경제협력

◆ 중국, 북한 당 창건 기념일에 류윈산 상무위원 등 공산당 대표단 파견

○ 중국은 북한 노동당 창건 70돌 기념일을 맞아 열리는 경축행사에 류윈산(劉云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하기로 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4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초청에 따라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서기처 서기인 류윈산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공산당 대표단이 당창건 70돌 경축 행사에 참가하며 조선을 공식 친선방문한다"고 보도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중국 대표단의 규모나 구체적인 방문 일정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음.

이데일리, "中, 北 당 창건 기념일에 류윈산 상무위원 등 공산당 대표단 파견", 2015.10.04.

◆ 북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 조인

○ 북한과 러시아가 양국이 경제 및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조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긴 회담록에 10월 14일 조인했음.

-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과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회담록에 서명했음.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회담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연합뉴스, "북한-러시아, 경제·과학기술 협조 관련 회담록 조인(종합)", 2015.10.14.

◆ 북한-러시아, 지하자원·건설 분야 합작투자 진행

○ 북한과 러시아가 최근 지하자원 개발과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합작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월 16일 코트라 모스크바 무역관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기업들이 합작 투자를 위해 북한에 잇달아 실사단을 파견하고 있다"며 이렇게 보도했음.

○ 러시아의 지하자원 개발 전문기업인 '노던 마인즈'사는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해 합작기업 설립을 검토하고 있음. 노던 마인즈사는 2015년 상반기에 지질전문가단을 북한에 보내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음.

- 러시아는 함경남도 단천에서 마그네슘 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하고 북한의 '아연·마그네슘 클린커 협회'와 합작 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러시아의 철강제품 도매업체인 '세비르'사는 북한과 철강 생산 합작을 위해 함경북도 김책제철단지에서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음. 세비르사는 김책제철단지 개보수 작업과 함께 연간 10만 톤 규모의 철강 자재 생산시설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전해졌음.

○ 러시아의 국영 가스회사인 '가즈프롬 인터내셔널'사는 북한 동해지역의 천연가스 매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조만간 방북할 예정임.

○ 러시아 기업들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조건을 검토하는 한편 유망한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를 진행하고 있어 양국 간 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임.

세계일보, "북한-러시아, 지하자원·건설분야 합작투자 활발", 2015.10.16.

◆ 북한 대외경제상 동남아 순방 진행, 무역 다변화 시도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0월 17일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에 가는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정부 경제대표단이 10월 17일 평양을 출발했다"고 보도했음.

- 동남아 국가에 경제 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속에 경제 협력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는 모습임.

○ 통신은 대표단의 방문 목적에 대해 소개하지 않았지만 전통적인 우호국들을 상대로 외자유치 등 다방면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행보로 보인다는 분석임.

○ 북한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일변도 경제협력에서 벗어나 동남아국가 등 제3국을 중심으로 경제관계의 다변화를 꾀하려 하고 있음.

파이낸셜뉴스, "북한 대외경제상, 동남아 순방 '무역 다변화'", 2015.10.17.

◆ 북한–중국, 신의주특구에 총 4,000억 달러 투자 예상

○ 류윈산(劉雲山) 중국 공산당 상무위원이 9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에 참석한 뒤 북한 대외경제성과 랴오닝(遼寧)성 정부가 신의주특구 공동개발에 합의하면서 북한 신의주특구사업이 본격화될 조짐임.

○ '신의주국제경제지대(신의주특구) 개발총계획도'에 따르면 북한은 특구에 홍콩 같은 국제관광도시 성격을 가미할 생각이었으나 이번에 빠지게 되었음. 이는 중국이 관광·오락 부문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임. 대신 신의주 운하,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항목이 새로 포함됐음.

- 북한은 중국과의 경협을 위해 운하를 건너는 데 필요한 교량 10개 외에 2개의 대교를 추가 건설했음.

- 압록강 부근의 위화도, 황금평 사이에 있는 유초도에서 남·북 신의주로 1개씩 연결되는 다리임. 신의주특구 건설이 시작될 경우 중국과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려는 용도로 보임.

○ 북한은 향후 5년 내 특구의 기본 인프라 건설을 마치고 10년 내에 특구를 완성한다는 계획임. 기초건설에 1,000억 달러(약 112조원), 총 투자 규모는 4,000억 달러(약 4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하고 있음.

중앙일보, "[단독] 카지노 빠진 신의주특구 … 총 4000억 달러 투자 예상", 2015.10.26.

◆ 북한, 베트남·인니·라오스에서 투자유치 시도

○ 북한이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투자 유치 활동을 벌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음.

○ 10월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리룡남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하는 북한 경제대표단이 전날 베트남에서 투자 설명회를 개최했음.

- 10여 명으로 구성된 북한 경제대표단은 베트남 기업들을 상대로 북한 경제개발구와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 등을 소개하고 투자를 요청했음.
- 리 대외경제상은 부 후이 호앙 베트남 산업무역부 장관 등 주요 경제 부처·기관장을 만나 경제협력 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북한 경제대표단은 인도네시아와 라오스를 방문해 투자 유치와 교역 활성화 방안에 대해 현지 정부·기업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음.

○ 북한은 이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에 힘입어 세계적인 제조업 생산기지로 떠오르며 연간 6%대의 강한 경제 성장세를 보이는 베트남에 공을 들이고 있음.

- 베트남은 북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투자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등을 들어 대북 투자를 꺼리고 있음. 베트남 기업들은 북한의 투자 요청에 대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음. 현재 베트남의 해외투자 규모는 150억 달러로 대북 투자는 전혀 없으며 양국 교역도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음.

연합뉴스, "北, 베트남·인니·라오스서 투자유치 시도…성과 없는 듯", 2015.10.27.

◆ 대한민국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지원 검토

○ 정부가 남·북·러 3국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1월 5일 확인됐음.

- 통일부 당국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계획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돼 있어 현재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음. 외통위는 10월 작성한 '통일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적극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음.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실현 차원에서 정부가 '5·24 조치의 예외적 사안'이라고 밝

히며 적극 참여를 추진한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은 예상됐던 수순임.

- 실제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3사는 이번 사업의 경제적 효용성 등을 이유로 최종 본계약 체결에 앞서 난색을 표하며 '수백 억' 규모로 출자금액을 제한키로 한 것으로 전해짐.
-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 규모는 3억 4,000만 달러(3,800억 원) 수준으로 코레일 등 3사는 컨소시엄 형태로 전체 지분 중 34.3%, 1,300억 원 규모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하게 됨.
- 따라서 정부가 남북협력기금의 지원을 확정할 경우 규모는 최대 1,000억 원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됨.

○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이미 2013년 11월 양해각서 체결 후 2014년 11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시범 운송 사업을 두 차례 진행하는 등 본격 개시까진 본계약 체결만 앞둔 상태임.

뉴스1,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지원 검토…최대 1천억", 2015.11.05.

◆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 러시아 시베리아산 유연탄을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수송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 운송 사업이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통일부 당국자는 11월 13일 "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 등 3개사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사업성 검토를 위해 제3차 시범 운송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음.

- 이번 사업은 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캔 유연탄을 북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한 뒤 선박을 통해 한국으로 반입하는 방식으로 이뤄짐.

○ 3사는 나진항을 운영하는 북·러 합작사인 나선콘트라스(RCT)의 러시아 측 보유 지분 49%를 인수해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본격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성 검토를 위해 2014년 11월과 2015년 4월 두 차례 유연탄 수송 시범사업을 벌였음.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조치'의 예외로 하고 있음.

○ 3차 시범사업은 2척 이상의 선박이 나진항에 동시에 접안하는 능력을 확인하고, 컨테이너선 운항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 중국 국적의 벌크선 2척과 소형 컨테이너선 1척을 투입함. 유연탄 12만 톤을 광양항과 포항항으로, 중국산 생수를 담은 컨테이너 10개를 부산항으로 운송함.

○ 현장 점검을 위해 3사와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의 실사단이 11월 17일부터 북한 나

진·선봉지역을 방문할 예정임.

○ 3사와 러시아 측은 당초 2015년 안에 본계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사업성 검토가 지연되면서 2016년 상반기로 본계약이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음.

한국경제, "'나진~하산 프로젝트' 17일부터 3차 시범운송", 2015.11.13.

◆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지연

○ 남한과 북한, 러시아 3개국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3차 시범운송이 북한 나진·선봉 지역에 내린 폭설로 일부 지연되고 있음.

- 11월 24일 통일부에 따르면, 컨테이너선(1만 톤) 1척을 이용한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중국산 생수 운송이 도로 사정에 따라 미뤄졌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에서 유연탄 외 다른 물자를 함께 들여오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벌크선(4.5만톤) 2척을 이용한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 운송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통일부 당국자에 따르면, 컨테이너 운송은 나진·선봉 지역 폭설로 인한 도로 안전 문제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국내 기업 3사는 12월 5일까지 여건이 되는대로 추진할 예정임.

- 이 당국자는 지난 18일 시작된 벌크선 운송은 이달 30일까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러시아산 유연탄을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 구간 철도로 운송한 뒤 나진항에서 화물선에 옮겨 실어 국내 항구로 들여오는 남·북·러 3각 물류 사업임.

- 국내에서는 포스코, 코레일, 현대상선 등 3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성 검증을 위한 시범 운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임.

이데일리,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지연…"北 폭설 때문"", 2015.11.24.

◆ 러시아, 북한 전력 협력 협정 서명

○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가 북한과의 전력 분야 협력 협정 서명을 지시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11월 30일 보도했음.

- 통신은 "러시아와 북한은 전력 기술 상호 교환과 비즈니스 촉진, 국가 간 에너지 공급체

구성, 전력 분야 발전을 위한 회의체 구성, 개인 훈련 등 세부 사항에 합의점을 도출했다"고 밝혔음.

- 통신은 그러나 합의된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음.

노컷뉴스, "러시아, "북한 전력 협력 협정 서명"", 2015.12.01.

◆ 북-중 합작회사, 신의주특구 개발권 획득

○ 북한 당국이 신의주 경제특구 내 일부 지역의 개발권을 북-중 합작회사에 허가한 문서가 공개됐음.

- 북한 대외경제성의 '개발사업권 승인서'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안북도 신의주시 임도 일대 6.2㎢의 개발사업권을 '조선진한개발회사'에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음. 개발 기간은 50년이고 사업권 승인일자는 2015년 2월 11일임.
- 임도는 압록강 하류 위화도에 인접해 있는 섬으로 2002년 북한이 시장경제 실험을 목표로 지정한 신의주특구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음.

○ 기업창설승인서에 따르면 조선진한개발회사는 중국 측 자본 70%, 북한 진흥무역회사가 30%를 출자해 설립됐음.

- 자본금은 1억 8,000만 달러(약 2,084억 원)임. 북한은 이 기업에 임도를 50년간 이용할 수 있는 토지이용증도 함께 발급했음.

동아일보, "北-中 합작회사에 신의주특구 개발권", 2015.12.02.

◆ 백두산 생수, 중국과 북한 나진항 거쳐 부산항 도착

○ 중국 백두산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생산한 생수가 북한 나진항을 거쳐 12월 7일 오전 부산항에 도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음.

- 나진항을 통한 백두산 생수의 운송은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 3차 시범운송 사업의 일환임.

○ 컨테이너 10개 분량의 백두산 생수는 그동안 중국산 생수로만 알려졌지만, 농심이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백두산 지역 얼다오바이허(二道白河)에서 생산한 제품임.

- 얼다오바이허에서 훈춘의 포스코와 현대 물류단지, 북중 육로국경인 훈춘 취안허(圈河) 통상구를 거쳐 북한 나진항으로 육로로 옮겨진 뒤 나진항 3호 부두에서 컨테이너선으로 부산항으로 들어오는 것임.

○ 그동안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따라 나진항을 통해 러시아산 유연탄이 벌크선을 통해 국내로 들어온 것은 여러 차례 있지만, 이번처럼 민간 상업용 컨테이너 화물이 나진항을 거쳐 들어오는 것은 지난 2010년 5·24 대북 제재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음.

○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는 남·북·러간 사업으로 이번 3차 시범운송에서도 러시아산 유연탄 12만 톤이 시베리아 쿠즈바스 탄전에서 나진항까지 철도로 운송된 뒤 나진항에서 벌크선을 통해 광양과 포항으로 11월 29일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옮겨졌음.

○ '중국→북한 나진항→한국 부산항' 루트를 통한 생수 시범운송은 나진항 물동량 확보를 통해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물론 앞으로 북·중·러 접경지역의 물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포석이 깔렸음.

- 포스코는 북·중·러 접경지역인 훈춘에 국제물류단지를 조성해 2015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중국 내륙 화물을 중심으로 창고 임대 및 보관업을 하고 있으나 향후 물류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제화물 운송도 추진하고 있음.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 "백두산 생수, '中→北나진항' 거쳐 내일 부산항 도착", 2015.12.06.

◆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방북, 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 예정

○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12월 10일(현지시간) 북한 평양을 방문해 양국간 에너지 협력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 통신이 전했음.

○ 평양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안톤 이뉴친 에너지부 차관이 이끄는 대표단이 이틀 동안 평양에 머물면서 양국 정부 간 전력 에너지 분야 협력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 정부는 이미 관련 협정 초안을 승인한 상태이며 이뉴친 차관이 북측과 협의한 뒤 최종 서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음.

-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에 2015년 11월 말 게시된 초안에 따르면 협정은 러-북 양국이 전력 분야 기술 교류, 전력 공급, 관련 인프라 건설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연합뉴스, "러 에너지부 차관 방북…"전력분야 협력협정 체결 예정"", 2015.12.10.

◆ 북-러, 전력분야 협정 체결, 나선시 전력 공급 예정

○ 북한과 러시아가 11일 전력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하는 협정을 체결했음.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북한과 러시아 정부 사이의 전력분야에서의 협조에 관한 협정이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했음.

- 이날 허택 전력공업성 부상, 안톤 이뉴친 러시아 에너지부 차관,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가 참석했음.
- 북한과 러시아는 현재 러시아의 전력을 함경북도 라선시에 공급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한편, 러시아가 6,000만 달러를 투자해 북한 나선경제특구와 북한과 국경을 접한 연해주 지역에 총 40메가와트 용량의 대형 풍력발전소 4기를 건설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북-러, 전력분야 협정 체결...나선시 전력 공급 예정", 2015.12.12.

◆ 북한, 중국과 수역갈등·정치 불안으로 석유탐사 실패

○ 북한이 50년간 석유탐사를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중국과의 수역갈등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6일 보도했음.

○ 보고서는 북한 석유 탐사의 실패 원인으로 중국과의 수역 관할 갈등에 따른 현대식 채굴장비 부족과 정치 불안을 꼽았음. 우선 자원 확보에 공격적인 중국이 대규모 석유와 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서해(서한만 일대)의 해양경계선 문제를 두고 북한과 마찰을 빚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해양석유총공사(CNOOC)는 2005년 북한과 서한만 분지의 원유 개발 협정을 체결했지만 북중관계가 냉랭해지면서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서는 소개했음.

○ 보고서는 북한의 정치 불안 때문에 국제 석유업체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영국업체 아미넥스의 사례를 언급했음.

- 아미넥스가 2004년 조선(북한) 원유개발총회사와 북한 전역에서 20년간 원유탐사 및 개발

계약을 체결했지만 탐사 사업이 장기간 지지부진하자 2012년에 결국 포기하였음. 당시 북한 내 채굴 가능 매장량이 40억~50억 배럴로 추정한 아미넥스는 "예측 불가능하고 급변하는 북한의 정치 상황 때문에 탐사를 중단한다"고 밝혔음.

○ 몽골과 러시아 중부의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도 북한 석유 탐사에 나섰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음.

○ 보고서는 현재 6~7개 외국 정유업체가 북한과 석유 및 가스 탐사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발 진척 여부는 외국업체의 원활한 채굴 비용 및 기술 제공과 북한 정부의 정치 불안 해소 여부에 달려 있다고 지적했음.

연합뉴스, "北 50년 석유탐사 결국 실패…中과 수역갈등·정치불안 탓", 2015.12.16.

1.3 북한 시장 관련

◆ 평양의 비공식 환율 1달러=8,400원

○ 9월 23~29일 북한의 경제상황을 알아보려 평양을 방문한 일본 경제주간지 '도요게이자이'(東洋經濟)의 후쿠다 게이스케 부편집장은 북한의 시장 환율은 1달러에 8,400원 가량이며 공식 환율을 1달러에 106원 정도였다고 밝혔음.

- 그는 "보통강호텔에서의 공식 환율은 1달러에 106.37북한원이다. 2014년 같은 시기에는 1달러에 99.78원이었다"며 "보통강백화점에서 본 실질환율은 1달러 8,400원으로, 2014년에 1달러 7,600원 정도였다"고 말했음.
- 그는 이어 "물가는 과자나 생선 통조림 등은 1달러 이하로 살 수 있고 옷도 아동용은 5~10불 정도였다. 호텔에서 산 생수는 30~40원 가량이었다"고 덧붙였음.
- 후쿠다 부편집장은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과 평양남새연구소 등을 방문해 포전담당책임제의 성과를 물어보니 관계자들이 '생산량이 30~40% 늘었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음.
- 북한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관계자가 "2015년 가뭄 영향으로 모내기를 두 번, 세 번 할 수밖에 없는 지방도 있었지만 모내기가 잘 된 지방은 지금 작황은 괜찮다"고 추수 전망을 이야기했다고 소개했음.

연합뉴스, ""평양 시장환율 1달러=8,400원…공식환율은 1달러=106원"", 2015.10.17.

◆ 북한 신의주 시장, 확대 추세

○ 북한 신의주 장마당의 규모가 10년 새 두 배가량 커졌다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가 나왔

음.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0월 6일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 퍼시픽 포럼의 벤저민 카제프 실버스타인 연구원의 장마당 추세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음.

- 벤저민 카체프 실버스틴 연구원은 10월 30일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기고한 보고서를 통해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의주에서 시장의 규모가 110%이상 늘어났다"고 밝혔음.
-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2003년과 2014년 위성사진 분석 결과 신의주 장마당 규모가 114% 커졌다고 했음. 다만 지역별로 편차가 커 개성 장마당은 2004~2014년에 16% 커졌고, 함흥은 2008년 이후 규모가 그대로였다고 했음.
- 실버스틴 연구원은 신의주와 개성 등 북한의 12개 주요 도시를 촬영한 상업용 위성사진을 분석했으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물과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지역을 모두 합해 계산했다고 설명했음.
- 그는 인구 1인당 시장으로 쓰이는 지역의 면적으로는 이들 주요 도시 중 남포와 해주가 각각 1위와 2위였다며, 외부와의 교역이 활발한 도시에서 시장도 발달하는 상관관계가 나타났다고 덧붙였음. 인구 대비 장마당 규모를 분석한 결과 평안남도 남포와 황해도 해주 등 서해안과 남쪽에 있는 도시의 장마당이 더 큰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음.
- 실버스타인 연구원은 이 지역의 해상 무역이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한국경제, "북한 신의주 장마당 10년새 2배로", 2015.10.06. 연합뉴스, "미 전문가 "신의주에서 최근 시장규모 빠르게 확대"", 2015.10.31.

◆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 북한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시장이 406개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음.

-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은 10월 25일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출연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운영하는 공식 시장이 406개로 확인됐다고 밝혔음. 이는 2010년보다 두 배 증가한 수준임.
- 길거리에 형성된 비공식 장마당까지 합하면 북한에서 상거래가 이뤄지는 장소는 더 많음.

○ 북한의 공식 시장은 건물이 있으며 인민보안국의 책임 아래 주민들이 자릿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곳을 말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북한에서는 공식 시장이 꾸준히 확장되거나 새로 건설됐음.

한국경제, "북한, 합법적 공식 시장 406개 달해", 2015.10.25.

◆ 북한 장마당 내 북한 돈으로 거래되는 품목은 일부인 것으로 파악

○ 2009년 화폐개혁 실패로 환율과 화폐에 영향을 끼쳐 북한 장마당에서는 가격이 싼 농산물만 북한 돈으로 거래되고 공산품에 대한 흥정은 위안화와 달러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짐.

- 장마당에선 1달러당 100원(북한 화폐)가량의 공식 환율이 아닌 1달러당 8,000원의 비공식 환율이 적용되고 있다고 전해짐.
- 제임스 피어슨 로이터 북한 특파원은 최근 평양에서 샤프 TV는 1,340달러, 소고기는 1㎏당 9달러, LED 전구는 5달러 안팎에 살 수 있다고 보도했음. 자주 전기가 끊기는 사정에 맞게 중국산 충전식 배터리를 단 전등과 라디오, 가정용 태양광 장치도 구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장마당에선 협동농장, 공장기업소, 수산사업소에서 생산한 상품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규제가 풀리는 추세임.

- 북한법상 거래가 금지된 군수품, 연료, 허가받지 않은 수입품, 금은 등 귀금속도 관리자에게 뇌물을 바치면 처벌받지 않고 살 수 있음. 외국 영화 음악 등과 허가받지 않은 기록매체, 한국산 제품 일체는 불법이지만 비밀리에 거래되고 있음.

한국경제, "북한 돈으론 농산물 밖에 못 사…공산품은 위안화·달러로", 2015.11.05.

◆ 북한, 장마당 800곳으로 5년 새 2배 증가

○ 북한 장마당이 활성화되고 있음.

-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최근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북한 공식 장마당의 수가 2010년에 비해 두 배가량 늘어난 406개라고 밝혔음.

○ 국영 시장인 장마당 외 비합법 시장도 성장세임.

- 재판매하는 '되거리 장사', 옮겨 다니며 파는 '메뚜기 장사', '중고집(중고매장)', 비상설 '야간시장' 등을 합치면 북한 내 시장 수는 8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었음.

한국경제, "장마당 800곳, 5년새 2배…시골까지 퍼진 시장경제", 2015.11.05.

◆ 북한 '장마당' 관련 보도

○ 북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성격의 장마당이 활성화되면서 배급제에 익숙한 북한사회

도 눈에 띄게 변하고 있음.

- 초기에는 '등짐장사'가 주를 이뤘지만 현재는 철도와 차량을 이용해 물품을 먼 곳으로 이동해 파는 '달리기 장사'와 '차판 장사'까지 등장했음. 이밖에 상설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매대 장사', 장소를 옮겨 다니며 물건을 파는 '메뚜기 장사'도 있음.

○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물품은 매우 다양함.

- 주식인 옥수수와 메주콩, 라면, 육포, 감기약, 설사약 등은 물론이고 여성 및 남성용 정장, 일본산 코끼리 밥솥, 지멘스 냉장고 등 전자제품도 거래됨.

○ 화폐는 북한돈 이외에 중국 위안화와 달러화도 사용됨. 상인들은 특히 위안화를 선호한다고 탈북민들은 전했음.

○ 장마당이 활기를 띠고 거래 규모가 커지면서 돈을 빌려주는 고리사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음. 특히 상당한 자본력을 갖춘 북한판 자본가, 즉 '돈주'들이 출현했다고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함.

○ 장마당이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거래되는 품목도 늘고 있음.

- 탈북민들은 장마당 최고 인기 품목이 '의류'이며, 제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었다고 입을 모았음. 전자제품의 경우 가전제품 중심으로 거래됐지만 아직 활성화한 수준은 아니었다고 했음.

○ 탈북민들은 최근 북한 장마당 변화의 원동력으로 휴대전화의 확산을 꼽았음.

- 2012년 김정은 시대 개막 이후 급속도로 통신수단이 발전하면서 소비자 친화적인 서비스가 자리 잡아 가고 있다는 것임.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2015년 발표한 국가별 이동전화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북한의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2014년 기준 280만 명으로 추정됨.

- 휴대전화를 통해 평양 기준의 실시간 위안화, 달러화 환율이나 각 지역의 물품 상황을 누구나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정보의 유통이 과거보다 활발해지고 영업 방식도 다양화됐음.

연합뉴스, "〈북한의 시장〉 ①'변화의 발원지' 장마당", "〈북한의 시장〉 ②북한이탈주민이 전하는 장마당", 2015.11.10.

◆ 북한의 소비주도층 100만명 추정

○ 북한의 내수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며 소비 주도층이 약 1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이 해외직구매를 통해 남한 제품을 사들이는 경향이 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음.

○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2일 오후 민간남북경제교류협의회와 한반도통일연구원, 금강산기업인협의회 공동주최로 열리는 '8.25 합의 이후 남북경협의 과제와 전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즈니스 활성화 주체로서 '돈주'들이 성장해 도소매와 부동산, 금융, 임대, 고용 등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음.

○ 구체적 사례로 함경북도 청진시 수남시장의 경우 현재 매대가 1만 2,000여 개로 추정되며, 양강도 혜산시장의 경우 시장 이외 지역과 노점까지 포함하면 4,000여 개 매대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음.

○ 임 교수는 "일반 주민은 물론 간부 부인과 돈주, 돈주가 고용한 노동자 등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며 "시장 거래 품목이 다양화되고 자전거 수리 등 서비스 업종이 발달하고 있으며, 배달이 일반화되고 매대 판매와 양도도 가능하다"고 지적했음.

세계일보, ""북한 소비주도층, 100만명 추정…내수시장 성장 여파"", 2015.12.22.

◆ 존스홉킨스대학 멜빈 연구원, 북한 전역에 합법시장 400개 넘는다고 주장

○ 북한 당국이 인정한 합법적 공식 시장의 수가 북한 전역에 걸쳐 400개가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음.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2월 23일(현지시간) 커티스 멜빈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 연구원이 분석한 위성사진을 통해 "2015년 위성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북한 공식 시장의 확장"이라며 "위성사진에서 확인된 합법적 공식 시장의 수가 400개가 넘는다"고 밝혔음.

○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으로 본 김정은 시대 특징'이라는 RFA의 주간프로그램에서 이같이 말하며 "나선시 경제무역지대를 비롯해 황해북도 사리원, 강원도 원산 등 전국에 걸쳐 새로 생기거나 더 크게 확장한 시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음.

뉴스1, "美전문가 "북한 전역에 합법시장 400개 넘어"", 2015.12.24.

1.4 기타

◆ 북한, 원산공항에 이어 삼지연, 어랑천공항 확장 공사 진행

○ 북한이 최근 원산 갈마비행장을 재건·확장한데 이어 양강도 삼지연비행장과 함경북도 어랑천비행장을 국제비행장으로 확장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 북한 전문 사진작가인 아람 판 사진작가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갈마비행장에 건설된 신청

사 사진을 공개했음.

○ 갈마공항은 홍콩 PLT설계건축회사가 2억 달러를 들여 확장 공사한 원산갈마공항은 활주로 길이를 2,050m에서 3,500m로 확장해 원산, 금강산특구의 관광객 유치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됨.

- 갈마공항은 항공기 12대가 계류할 수 있고 연간 120만 명의 승객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으로 알려짐.
- 11월 국내선을 중심으로 공항이 개장될 예정이며, 조만간 국제선도 취항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북한은 양강도 삼지연과 함경북도 어랑천비행장을 국제비행장으로 전환하기 위한 개건확장공사도 진행 중이라고 10월 1일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음.

- 양강도의 소식통은 "백두산지구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 백두산 관광철도와 삼지연비행장 확장개건 공사가 동시에 펼쳐지고 있다"고 설명했음.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어랑천비행장을 국제비행장으로 개건확장하면 칠보산과 관모봉, 장연호와 유명한 경성 주을온천 등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음.

노컷뉴스, "北, 원산공항에 이어 삼지연, 어랑천공항 확장공사 한창", 2015.10.01.

◆ 압록강대교 임시 복구 완료 북-중 통행 정상화

○ 교통사고로 다리 상판이 무너지면서 운행이 중단됐던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를 연결하는 압록강대교가 9월 30일부터 차량이 정상운행에 들어갔음.

○ 9월 28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 압록강 철교 북측 지역에서 단둥을 떠나 신의주로 가던 중국 트럭이 철로쪽으로 넘어지면서 다리 노면 일부와 철로를 파손되어 통행이 차단됐었음.

노컷뉴스, "압록강대교 임시복구…"북중 통행 정상"", 2015.10.01.

◆ 존스홉킨스대학 컬빈 연구원, 나선시 홍수피해 위성 영상 공개

○ 미국의 상업위성이 북한 나선시의 홍수피해 모습을 촬영해 인터넷 매체인 구글어스에 공개했음.

○ 태풍 '고니'의 영향으로 8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나선시 지역에 내린 홍수로 40여 명의 인명피해와 1,070여 동, 5,240여 세대의 주택이 파손되는 등 큰 피해를 냈음.

○ 위성사진 분석을 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위성사진을 확인한 결과 도로와 다리, 철도 등이 부서지고, 주택과 농경지 등이 흔적 없이 사라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 그는 "농업·산업 시설도 파괴되어 온전한 사회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며, 선봉지구는 많은 주택과 교통시설, 산업시설도 홍수피해를 입었다"고 확인했음.
- 그는 "나진과 선봉을 연결하는 다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괴됐고 나진부터 중국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홍수 피해로부터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설명했음.

○ 전체적인 위성사진을 보면 선봉지구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피해규모는 점점 커지고, 선봉지구 중심부에 건물과 댐, 주택 등이 큰 피해를 입었음.

- 당시 나선시의 홍수피해는 비닐하우스 단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나선시의 선박 수리 공장도 가동을 멈추는 등 당시 홍수피해는 나선시의 일상생활과 산업 활동 등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을 마비시킨 것으로 나타났음.
- 홍수피해가 컸던 선봉지구와 달리 나진구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음.



나선시 비닐하우스 농장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습(사진=구글어스/ 커티스 멜빈/RFA)

노컷뉴스, "北 나선시 홍수피해 위성 영상...당시 모습은?", 2015.10.03.

◆ 북한, 홍수피해 나선시에 주택 1,800가구 신축

○ 북한이 홍수 피해를 입은 나선시에 1,800여 가구 규모의 주택을 새로 짓고 입주를 시작했음.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10월 6일 "한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선시 선봉지구 백학동지역에 1,300여 세대의 단층살림집들이 즐비하게 세워 온전한 하나의 주택구역이 형성됐다"고 보도했음.
- 방송은 이어 "청계동, 유현동, 관곡동지구 등 여러 곳에 500여 세대의 소층 단층살림집들이 주변 경치와 어울리게 새로 건설돼 새마을들이 생겨났다"고 덧붙였음.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나선시 홍수 피해 주민들에게 집들이 선물도 전달했음. 선물 전달식은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김평해 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용진 내각 부총리, 강표영 인민무력부 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월 5일 나선시 곳곳에서 열렸음.

연합뉴스, "북한, 홍수피해 나선시에 주택 1천800가구 신축", 2015.10.06.

◆ 북한, 10년 만에 백두산발전소 완공

○ 북한이 10여 년간의 공사 끝에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완공하고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축하공연을 가졌음.

- 준공식에는 김정은을 비롯해 김기남, 최룡해, 최태복, 김양건, 곽범기, 오수용, 김평해 당 비서와 리일환 당 부장, 리상원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전용남 청년동맹중앙위원장 등이 참석했음.
- 김정은은 준공식에서 "당중앙은 다음해 청년절까지 백두산영웅청년3호발전소 건설을 무조건 끝낼 것을 명령한다"며 "청년들이 앞장서서 혜산·삼지연 철길 건설을 다그치고 양강도 감자농사를 비롯한 경제사업 전반과 인민생활 향상에 본보기를 창조해야 한다"고 추가 과제도 부여했음.

○ 2002년부터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청년동맹)이 맡아 건설해온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는 양강도 백암군의 하천인 서두수 상류에 3개의 계단식 발전소 형태로 지어졌음.

○ 북한은 최근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청년과 군인들을 동원해 건설 속도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으며, 김정은도 4월과 9월 건설장을 찾아 독려한 바 있음.

세계일보, "北, 10년 만에 '백두산발전소' 완공", 2015.10.04.

◆ 정부, 개성공단 절수 조치

○ 정부는 10월 7일 북한 지역의 가뭄으로 인해 개성공단 내 절수 조치를 취했지만 현재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밝혔음.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0월 7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용수 부족 우려와 관련, "북한 쪽 가뭄이 심해서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개성공단에서 절수를 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운영에 지장을 받는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음.
- 정 대변인은 "현재 절수만으로도 1년 이상 비가 안 와도 개성공단 용수 공급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통일부는 비상취수원으로 개성공단 옆에 있는 사천강의 강물을 하루 3만 톤 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는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의 수량을 줄여 환경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심 의원은 "비무장지대 생태 습지를 관통하는 사천강의 강물을 비상취수원으로 쓰려면 생태계 훼손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며 "빗물 활용 시설 설치 혹은 남측에서 북측으로 상수도관을 연결해 용수 공급을 안정화하는 방안 등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통일부의 정 대변인은 "최근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사천강을 끌어다 쓸 정도로 긴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사천강 물을 끌어다 씀에 따라 자연훼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후에 검토해야 할 문제로 생각한다"고 밝혔음.

연합뉴스, "정부 "개성공단 절수 中…용수 공급에는 지장 없어"(종합)", 2015.10.07.

◆ 북한 평양–벨라루스 직항노선 2016년 5월 개통

○ 북한 평양과 벨라루스를 오가는 직항 노선이 2016년 5월 개통될 예정임.

-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NK뉴스는 10월 13일 북한 평양 순안국제공항과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을 왕복하는 전세기 항공노선이 2016년 5월 개통된다고 보도했음.

연합뉴스, "북한 평양-벨라루스 직항노선 내년 5월 개통", 2015.10.13.

◆ 북한 나선시와 중국 훈춘을 연결하는 새두만강대교 건설 진행

○ 북한 나선시 원정리와 중국의 훈춘을 연결하는 새두만강대교 건설 공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음.

-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한미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9월 6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

석한 결과 기존 두만강대교 옆에 'T자'형 기둥을 세우고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음.

- 멜빈 연구원은 "기존의 다리는 폭이 6m로 2차선에 불과했지만, 새두만강대교는 길이 약 637m, 폭은 최소 22m의 왕복 4차선 도로로 건설 중"이라고 설명했음.
- 신두만강대교는 중국이 약 1억 6,000만 위안을 투자해 건설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北 나선시-中 훈춘 연결 '새두만강대교'…건설 공사 한창", 2015.10.15

◆ 러시아, 북한 풍력발전소 단지 설립 착수

○ 러시아가 풍력 발전기 설치 가능성이 있는 북한 지역에 풍력발전 단지 설립과 기상 데이터 수집에 착수했다고 밝혔음.

○ 러시아 극동개발부는 "러시아가 한반도 전력망 건설 '라오 에스 보스토크'(러시아동부전력계통) 프로젝트에 따라 북한 투자에 시동을 걸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10월 14일 보도했음.

- 통신은 "2014년 10월 알렉산드르 갈루시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 북한 방문 결과로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전력망 구축 사업"이라고 설명했음.

노컷뉴스, "러시아, 북한 풍력발전소 단지 설립 착수", 2015.10.15.

◆ 북한, 룡매도 6구역 간척사업 준공

○ 북한이 황해남도 룡매도 간척사업 6구역 공사를 완성했음.

- 앞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4월 28일 보도에서 룡매도 간석지 6구역 면적이 1,500정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음.
- 1정보는 9,917㎡(3,000평)가량으로, 1,500정보는 14.9㎢(450만평) 규모에 해당함.

○ 현지에서 진행된 준공식에는 리철만 내각 부총리 겸 농업상, 리응철 간석지건설 지도국장, 황해남도 간석지건설 연합기업소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참가했음.

연합뉴스, "북한, 룡매도 6구역 간척사업 준공", 2015.10.23.

◆ 러시아, 북한 나선지역 풍력발전소 건설 준비 작업

○ 러시아는 북한 나선지역에 대형 풍력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하고 건설 예정부지에서 기상자료 수집 등 사전 준비 작업에 들어갔음.

-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은 10월 29일 "극동지역 최대 전력회사인 '라오 에스 보스토크'가 실질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풍력발전소 배치 예상 장소에서 풍력 측량 장비를 설비하고 기상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다"고 전했음.
- '라오 에스 보스토카' 알렉세이 카플룬 자사 전략투자사업담당 부사장은 "2016년 여름 북한에서 20메가와트 규모의 풍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라오 에스 보스토크(러시아동부전력시스템)은 "나선 경제특구 전력 공급 사업으로 북한과 풍력발전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 연간 풍력 사이클 용량 측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음.
- 프로젝트에 대한 경제 타당성이 입증되면 이 프로젝트를 현실화할 방침이며, 규모는 타당성 연구 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결정된다고 덧붙였음.

노컷뉴스, "러시아 "北 나선지역 풍력발전소 건설 준비작업"", 2015.10.30.

◆ 중국 지린성, 2016년부터 두만강국제관광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 중국과 북한, 러시아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두만강 국제관광구 조성사업이 2016년부터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임.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두만강 국제관광구사업을 지린성의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음.

○ 중국 지린성 정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으로 명명된 이 사업에 따라 두만강 국제관광구 조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국제관광구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정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건설사업을 시작할 예정임.
- 지린성은 2012년 두만강 국제관광구 건설 계획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지난 3년 간 북한과 러시아와 함께 실무협의를 벌였음.

○ 러시아 관광청도 2015년 2월 두만강 하구의 국제관광구 조성안을 승인했음.

- '러시아의 소리'방송은 2월 20일 "무비자 관광지역으로 운영될 이곳에는 러시아와 중국, 북한 등 세 나라가 공동으로 관련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자유무역도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보도했음.

노컷뉴스, "중국 지린성, "2016년부터 두만강국제관광구 조성사업 본격 추진"", 2015.11.03.

◆ 개성공단 남측 인원 출입 불허

○ 북한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2명의 공단 출입을 불허한 것은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되었음.

- 남과 북은 2015년 2월부터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도 갈등을 겪다가 8월이 돼서야 최저임금 5% 인상에 합의한 바 있어 이번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도 상당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북측은 관리위 인원 2명의 출입을 불허하면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음.

- 북측이 개성공단에서 근무하는 남측 관리위 인원 2명을 사실상 추방하는 강수를 둔 것은 앞으로 토지사용료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매일경제, "北, 개성공단 남측인원 출입불허…토지사용료 갈등 배경", 2015.11.04.

◆ 북한, 청천강에 수력발전소 10개 건설 중

○ 북한이 만성적인 전력난 해소를 위해 청천강에 10개의 계단식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5일 방북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음.

- 북한을 다녀온 한 소식통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평안남도 원리부터 향산군까지 청천강 상류에 10개의 수력발전소 댐이 건설되고 있다"며 "이미 2곳은 다 건설되어 물을 가둬두고 있다"고 밝혔음.

- 북한 위성사진 전문가인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커티스 멜빈 연구원도 "청천강에 건설되는 발전소가 최소 10개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했음.

○ RFA는 이 같은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이 산림 황폐화로 나날이 줄어드는 수자원을 확보해 전기와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자연경관을 조성해 관광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음.

- 방북 소식통은 "댐을 다 쌓는다 해도 기술과 자재 부족으로 발전기가 없어 전기 생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의문을 제기했음.

○ 앞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2014년 말 "3~12호 청천강 발전소의 출력은 합계 12만 ㎾"라고 보도한 바 있음.

- 당시 조선신보는 "1, 2호와 마찬가지로 10개의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모두 직통의 송전선을 통해 평양으로 가게 되며, 평양의 전력문제를 푸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한이 청천강 유역에 집중적으로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평양 지역의 전력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임.

연합뉴스, ""북한, 청천강에 수력발전소 10개 건설중"〈RFA〉", 2015.11.05.

◆ 북한, 개성공단 관리 인원 출입 제한 해제

○ 북한이 우리 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인원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해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1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11월 5일 오후 최상철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 등 우리 측 관리위 2명에 대한 출입제한 조치를 해제할 것임을 구두로 통보하고 이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고 말했음. 해제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음.

○ 북한은 지난 11월 3일 이들이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의 일에는 반대하고 남측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며 방북 불허 조치를 취했음.

- 2015년부터 우리 측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북측에 지급해야 하는 토지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임.
- 우리 측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를 적정선으로 생각하는 반면 북측은 분양가의 최대 10%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북측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해졌음. 우리 측 관리위 부위원장은 오는 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성공단으로 복귀할 예정임.

한국경제, "북한 '개성공단 관리 인원 출입제한' 돌연 해제", 2015.11.06.

◆ 신두만강대교, 2016년 10월 완공 예정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월 5일 중국 훈춘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신두만강대교가 2016년 10월 완공된다고 보도했음.

- RFA는 "훈춘시 공식 홈페이지는 11월 5일 대교 건설에 필요한 총 투자 규모 1억 4,700만 위안 중 이미 7,000만 위안이 투입됐다고 밝혔다"며 "연말까지 500만 위안이 추가 투입되고 2016년 10월까지 공사를 끝낼 계획"이라고 전했음.

○ 총 길이 549m의 새 다리는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되며 현재 진입교 기초 공사와 하부구조물 설치가 마무리됐음. 이 밖에 주교량 기초 공사가 끝났고 8개의 주교량 받침대가 설치됐음.

○ 훈춘시는 신두만강대교가 완공되면 북중 간 통행능력이 대폭 증가하게 되고 중국 측 취안허 통상구와 북한의 원정리 변방 검사소의 통관 환경도 개선될 걸로 내다봤음.

- 북중 양국은 1936년 완공된 기존 두만강대교가 교각이 흔들리는 등 안전문제가 제기되고 좁은 폭(6.6m) 탓에 원활한 차량 통행이 힘들어 2014년 9월 새 대교 건설에 착수했음.

○ 기존 두만강대교 상류에 30m 간격으로 나란히 건설 중인 새 다리는 중국에서 북한의 나선경제무역구로 통하는 핵심 물류 통로가 될 전망임.

경향신문, "북한 나진·중국 훈춘 연결 '신두만강대교' 2016년 10월 완공", 2015.11.06.

◆ 북한의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 풍력발전소 터빈 첫 생산

○ 북한이 처음으로 10㎾의 전력을 생산하는 풍력 발전기(풍력 터빈)를 생산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11월 6일 보도했음.

- 통신은 신형 풍력 터빈은 북한 서부 해안 지대에 설치할 계획이며, 강원도 세포군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가축 사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했음.
- 북한 대안중기계연합기업소에서 풍력터빈을 생산해 황해남도 남서부 은천 마을에 0.3㎾~1㎾ 용량의 전력을 공급해 왔다고 설명했음.

○ 러시아 '라오 에스 보스토카'(러시아동부전력시스템) 알렉세이 카플룬 자사 전략투자 담당 부사장은 2016년 여름 북한 나선시에 20㎿ 규모의 풍력발전소 2기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러시아는 이미 실질투자 프로젝트에 착수한 가운데 전문가들이 풍력발전소 배치 예상 장소에서 풍력 측량 장비를 설비하고 기상 데이터 수집에 들어갔음.

노컷뉴스, "北 대안중기, 풍력발전소 터빈 첫 생산", 2015.11.07.

◆ 북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준공식

○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준공식이 11월 17일 희천 9호 발전소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이날 준공식에는 박봉주 내각총리, 오수용 비서와 전력공업상, 금속공업상, 철도상, 건설건재공업상, 전자공업상, 기계공업상, 국가과학원 원장, 도당책임비서 등이 참석했음.
- 박 총리는 청천강계단식발전소건설에 건설자들, 일꾼들, 지원자들에게 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을 전달했음.

○ 한편, 조선신보는 2014년 12월, "청천강계단식발전소는 청천강(217㎞)의 흐름에 따라 자

강도, 평안북도, 평안남도에 걸치는 약 77㎞구간에 각기 다른 발전능력을 가진 10개의 중소형발전소로 건설된다고 소개했음.

- 청천강계단식발전소 건설중앙지휘부 부책임자는 "희천 1, 2호발전소의 출력은 합계 30만 ㎾이며, 3~12호발전소 출력은 합계 12만 ㎾"라고 말했음.

노컷뉴스, "北, 청천강 계단식발전소 준공식...10개 계단식 발전소 건설",2015.11.18.

◆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 남북이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을 오는 11월 26일 판문점에서 진행하기로 결정했음.

- 남북이 8·25 고위급 접촉에서 당국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지 3개월 만임.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남북 당국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에 호응함에 따라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됨.

○ 전문가들은 북한이 그동안 우리 측의 제안을 거부하다 뒤늦게 접촉에 응한 이유로 "회담 재개의 적절한 때를 기다린 것"으로 분석했음. 국제사회에 북한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시기를 전략적으로 탐색했다는 것임.

○ 최근 UN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이 임박하면서 국제사회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음.

- 외교부는 UN 제3위원회가 11월 19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 인권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음.
- 북한은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방북을 추진하는 등 대외관계 개선에 나서고 있음.

○ 남북은 실무접촉에서 당국회담 시기와 장소, 회담 대표의 급, 의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됨.

- 당국회담이 열리면 정부는 이산가족 서신 교환 등과 민간 교류 활성화 문제를 우선 대화 테이블에 올린다는 방침임. 북한은 5·24 대북제재 해제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북한인권법 제정 문제 등을 의제로 올릴 가능성이 큼.

한국경제, "남북 당국회담 실무접촉, 26일 판문점서 열린다", 2015.11.20.

◆ 무역업계 개성공단 해외시장 진출 공동 지원

○ 한국무역협회 등 무역업계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 한국무역협

회와 코트라(KOTRA)는 11월 23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함께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음.

- 협약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 사업 개발 및 추진, 입주기업 대상 교육·컨설팅 지원, 개성공단 국제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해외 투자유치 사업 개발 추진 등을 담았음.
- 세 기관은 이와 관련해 '정책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업무협약 이행과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방침임.

○ 현재 개성공단에는 124개사가 입주했음. 제품 생산능력은 우수하지만 해외 수출 노하우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부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으며 25개사 정도만이 활발하게 수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음.

연합뉴스, "무역업계 개성공단 해외시장 진출 공동 지원", 2015.11.23.

◆ 북한, 외화벌이 위해 불법 활동

○ 북한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불법 활동으로 외화벌이에 나선 사실이 드러났음.

○ 11월 24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외화 수입을 위해 해외에 파견한 의료 인력은 각종 불법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국정원 측은 밝혔음.

- 불법 낙태시술, 불법 약품 주사로 환자 상태 악화, 중금속 함유된 북한산 건강식품 판매 등이 대표적임.
- 특히 탄자니아에서 북한산 정력제로 판매되는 약품을 조사한 결과 국제 허용 기준치의 185배에 달하는 수은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음.
- 북한은 현재 자금 확보를 위해 해외에 파견된 인력 외에 건설·의료·IT 분야를 중심으로 3,000명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라고 국정원은 밝혔음.

○ 현재 북한은 50여 개국에 5만 8,000명의 근로자를 파견해 연간 2억 3,000만여 달러를 획득하고 있음.

매일경제, "[레이더P] 북한, 외화벌이 위해 수은 범벅 정력제 수출하기도", 2015.11.24.

◆ 이집트 오라스콤 주가 폭락

○ 북한 내 휴대전화 사업자인 이집트 통신업체 오라스콤(OTMT)의 주가가 11월 22일 크게 떨어졌음.

- 미국의 소리 방송에 따르면 '아흐람 온라인'과 '아스왓 마스리야' 등 이집트 매체들은 11월 22일 "오라스콤의 주가가 이날 이집트 주식시장에서 2.94% 폭락했다"고 전했음.
- 매체들은 "오라스콤의 나기브 사위리스 최고경영자 (CEO)가 이날 오전 북한에서 운영 중인 고려링크의 국유화 우려에 대해 이집트 주식시장에 해명했지만, 주가 폭락을 막지 못했다"고 전했음.

○ 오라스콤의 2015년 9개월 동안 영업손실액이 3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해 역시 주가 폭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음.

- 사위리스 최고경영자는 고려링크에 대한 합병논의가 계속 진행 중이지만, 오라스콤 운영팀이 계속 북한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음.
- 또한 미국, 유럽연합, 유엔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규제로 금융과 영업 활동이 어렵다고 덧붙였음.

○ 그러나 이집트에서는 오라스콤이 고려링크를 계열사에서 협력업체로 전환한다고 발표한 뒤 고려링크에 대한 북한 국유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오라스콤의 재무재표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북한 내 고려링크의 2014년 말 현금 잔고는 5억 4,800만 달러로 집계됐음.

노컷뉴스, "이집트 '오라스콤' 주가 폭락...北 '고려링크' 국유화 우려", 2015.11.24.

◆ 중국 지린성, 북한 접경 도시를 대북 무역 전초기지로 개발

○ 중국 지린성이 북한과 마주한 접경 도시인 지안(집안), 린장(임강), 창바이(장백)시를 대북 무역의 전초기지로 개발하기로 했음.

-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12월 2일 지린성은 북한 자강도 만포시와 현재 공사 중인 새 국경다리로 연결되는 지안시에 북중 무역을 위한 대규모 통관시설을 건설한다고 밝혔음.

○ 통관시설은 총 예산 1억 8,500만 위안(약 3,000만 달러)을 투입해 10만 2,800 평방미터 규모로 건설하며, 화물은 물론 인원 통관 검사소 등이 2016년 8월까지 준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음.

- 지린성은 만포-지안 국경 통관소가 완공되면 연간 화물 운송량이 50만 톤, 출입국 인원수는 20만 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음.

○ 지린성은 지안에서 압록강을 따라 상류 150㎞ 지점에 위치한 린장시에도 역시 구리 등 북한의 지하자원 수입 기지로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음.

○ 중국 기업은 북한 자강도 일대의 풍부한 지하자원 개발에도 나서 이미 동광과 몰리브덴 제련 공장을 현지에 건설해 생산품을 수입하고 있음.

○ 양강도 혜산시와 마주한 창바이시는 북중 교역 확충을 위해 관련 시설을 확충해 통관에 걸리는 시간을 30% 줄이기도 했음.

- 창바이시는 2015년 상반기에만 통관 화물이 11만 톤, 5,000만 달러를 기록해 연말까지 2014년 통관 물량(17만 톤)을 거뜬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음.

노컷뉴스, "中 지린성…"북한 인접 지안·린장·창바이에 무역 전초기지"", 2015.12.03.

◆ 남북 당국회담 결렬

○ 개성공단에서 11~12일 열린 제1차 차관급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의 합의사항이 담긴 공동보도문을 발표하지 못한 것은 물론 다음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한 채 종료되었음.

연합뉴스, "남북 당국회담 결렬…차기 회담 일정도 못 잡아(종합2보)", 2015.12.12.

◆ 중국 지린성, 지안–평양 고속철·고속도로 건설 계획 수립

○ 중국이 압록강 유역 북한 접경지역인 지린성 지안을 새로운 북중 교역 중심지로 개발하면서 지안-평양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음.

○ 중국 길림일보는 "중국 지린성이 앞으로 5년 동안 100억 위안 (약 15억 달러)을 투입해 자강도 만포시와 마주한 지안에 북중경제합작구를 신설하로 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이 전했음.

- 지린성은 먼저 대규모 통관시설과 물류창고, 가공공장 등을 갖춘 3.57㎢ 규모의 북중경제합작구를 지안시에 건설하기로 했음.
- 지린성은 또 총 사업비는 415억 위안(약 63억 달러)을 들여 창춘-퉁화-지안-평양을 잇는 약 800㎞ 구간에 고속철 건설과 함께 고속도로 신설도 추진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로선 북중 간 고속철 건설은 지린성 차원의 복안일 뿐 중국 중앙정부의 승인은 얻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음.

노컷뉴스, "중국 지린성, "지안-평양 고속철·고속도로 건설 계획"", 2015.12.29.

2 식량사정 및 식량 가격추이

◆ 북한 1인당 식량 배급량, 3년 평균 대비 21% 감소

○ 북한 당국의 9월 식량 배급량이 지난 3년 평균 보다 21% 줄고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지원도 감소해 주민들의 식량 상황 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정보 조기경보국의 크리스티나 코슬렛 동아시아 담당관은 10월 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북한 당국이 9월, 주민 1명당 하루 25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밝혔음.
- 이는 3년간 북한의 8, 9월 평균 배급량인 317g보다 21% 감소한 규모임.
- 코슬렛 담당관은 "북한의 식량배급이 줄어든 것은 가뭄으로 이모작 수확량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라며 "가뭄에 이은 홍수로 식량 사정이 2014년 보다 더 안 좋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음.

○ FAO는 북한의 밀과 보리 수확량이 2014년 보다 32% 줄었으며, 감자 수확량도 20%가량 감소했다고 밝혔음.

- 2015년 쌀 생산량도 가뭄 등의 영향으로 2014년 보다 12%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음. FAO는 북한이 2015년 식량 부족을 겪지 않으려면 10월 말까지 외부 지원이나 수입으로 42만 1,000톤의 식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분석했음. 이런 상황에서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지원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음.

세계일보, "북한 1인당 식량배급, 지난 3년 평균보다 21% 줄어", 2015.10.01, 연합뉴스, "북한 1인당 식량배급, 지난 3년 평균보다 21% 줄어", 2015.10.01.

◆ FAO, 북한 2015년 쌀·옥수수 생산량 2014년 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2015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총 생산량이 2014년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0월 9일 보도했음.

- FAO는 최근 공개한 '식량전망 보고서'에서 북한이 2015년 쌀 150만 톤과 옥수수 220만 톤을 생산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음. 북한의 수확량 감소는 가뭄 등 이상기후 때문으로 분석됐음.
- 2014년보다 쌀은 20만 톤, 옥수수는 40만 톤 감소한 수치임. 쌀과 옥수수의 총 생산량이

2014년 430만 톤보다 60만 톤(14%) 줄어드는 것임.

○ FAO는 북한이 2016년에 쌀 30만 톤, 옥수수 20만 톤을 각각 수입해 2015년 생산량 370만 톤까지 합쳐 모두 420만 톤의 식량을 확보할 계획이지만 북한의 연간 곡물 최소 소요량인 540만 톤보다 120만 톤가량 부족한 양이라고 지적했음.

○ 2016년도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7㎏, 옥수수 소비량은 80㎏으로 추정됐음. 북한 주민 한 명이 1년간 약 147㎏의 쌀과 옥수수를 소비하는 셈인데, 이는 유엔 권장 소비량의 절반 수준임.

연합뉴스, "FAO, 북한 올해 쌀·옥수수 생산량 작년보다 14% 감소", 2015.10.09.

◆ 북한, 식량 부족분 67% 확보 못해 식량난 위기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이 잇따른 가뭄과 홍수로 식량 부족분 67%를 아직 확보하지 못해 식량난이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음.

-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FAO의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보고서를 인용해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량이 42만 1,000톤이지만, 현재까지 북한이 확보한 식량은 14만 2,000여 톤에 불과해 67%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음.

○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2014년(30만 톤)보다 12만 1,000톤이 늘어난 것임.

- 이는 지난봄 발생한 가뭄과 7~8월 홍수 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국제사회의 지원 감소 때문으로 분석됐음.

○ FAO는 2015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2014년 보다 60만 톤 감소해 주민 1,600만 명이 식량난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음.

세계일보, "북한, 식량 부족분 67% 확보 못해", 2015.10.15.

◆ UN, 예년 수준을 회복한 북한의 식량 배급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북한의 10월 식량 배급량이 늘면서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고 밝혔음.

-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0월 21일 "북한 당국이 10월 초부터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의 식량을 분배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음. 북한 당국이 2013년과 2014년에 배급한 1인당 하루 식량 390g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유엔의 1인당 하루 최소 권장량 600g에는 훨씬 못 미침.

○ 북한은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1인당 하루 식량을 410g 배분하다가 7월 초 310g으로 줄였음. 이어 7월 중순 250g으로 크게 줄인 후 9월까지 이 양을 유지하다가 이달 들어 380g으로 대폭 늘렸음.

연합뉴스, "유엔, 북한 식량 배급, 예년 수준 회복", 2015.10.21.

◆ 북한, 벼 추수 실적 98% 도달

○ 가을 수확철을 맞아 북한의 벼 추수 실적이 98%에 도달했다고 중앙방송이 10월 27일 보도했음.

- 방송은 평안북도와 평양시, 함경남도, 남포시가 추수 성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음. 10월 17일 추수를 모두 끝낸 평안북도는 낱알 털기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설명했음.

세계일보, "북한, 벼 추수 실적 98% 도달", 2015.10.27.

◆ 북한 2016년 식량 부족분 100만 톤 전망

○ 북한의 2016년 식량 부족량이 100만 톤으로 김정은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최소 소요량 540만 톤에 비해 2016년 식량 1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음. 그는 2015년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2014년보다 10% 감소할 거라는 자체 전망치를 토대로 이같이 추산했음.
- 권 원장은 식량 부족으로 가장 타격을 받는 쪽은 사회취약계층일 것으로 예상하면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평양 등 대도시와 달리 지방도 피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음.

○ 김정은 집권 이후 2015년까지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매년 40만~50만 톤 정도였음.

- 북한 식량난의 주된 원인은 가뭄 때문임. 북한 당국도 2015년 가뭄을 '100년 만의 왕가뭄(가뭄)'이라고 표현했을 정도임.
- 2015년 이모작 및 가을 농사에 큰 영향을 주는 5월만 놓고 보면 선봉과 김책시를 제외한 25개 관측지점의 평균 강수량이 평년의 55% 수준에 불과했다고 전했음.

연합뉴스, ""북한 2016년 식량 부족분 100만톤…김정은 정권 들어 최대"", 2015.10.29.

◆ WFP, 대북 식량 지원 두 달 연속 감소

○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영양 지원이 최근 두 달 연속 감소했음.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 지역 사무소의 다미안 킨 대변인은 10월 29일 "10월에 북한 어린이

와 임산부, 수유모 70만 7,000여 명에게 1,920톤의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에 밝혔음. 이러한 수치는 9월의 취약계층 74만 2,000여 명에게 2,105톤을 지원한 것에 비해 9% 줄었음.

○ 세계식량계획은 "자금 부족으로 북한 87개 시, 군에서 식량 지원을 하던 것을 69개 시, 군으로 줄였다"고 밝혔음. "북한 내에서 운영하던 7개 영양과자 공장 가운데 5곳이 가동을 중단한 상태"라고 덧붙였음.

- 세계식량계획은 "현재 제한된 예산으로 취약계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의 영양실조 비율이 가장 높은 양강도와 함경북도 등 5개 도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음.

노컷뉴스, "WFP "대북 식량 지원 두 달 연속 감소"", 2015.10.30.

◆ 북한, 가뭄으로 식량공급 차질, 내륙에 피해 집중

○ 북한이 지난 봄부터 이어진 가뭄의 여파로 가을 식량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11월 5일 전해졌음. 이 현상은 주요 대도시나 국경지대 주요도시를 제외한 내륙 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식량 공급의 편차도 지역별로 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정부는 북한이 스스로도 '100년 만에 가뭄'으로 표현한 2015년 가뭄으로 인해 식량 생산량이 2014년 대비 10~15%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2015년 가을부터 북한 주민의 쌀, 옥수수 등의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 중국과 국경을 맞닿은 무역 거점이나 평양과 개성 등 대도시는 상대적으로 외부로부터의 식량 공급이 원활해 가뭄 여파가 적은 것으로 전해졌음.

○ 무역에 종사하지 않거나 구매력이 없는 일반 주민들은 지난 봄부터 초여름까지 이어진 가뭄으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음.

- 지난 여름 북한 일부 지역의 경우 홍수 피해가 날 정도로 폭우가 내렸지만 그 밖의 지역은 강수량 자체가 적어 봄부터 이어졌던 가뭄을 해소하지 못했던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음.

○ 북한 매체들은 10월 들어 비 소식을 전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강수량은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내륙 지역은 식수 공급도 원활치 않을 것으로 보임.

- 지난 8월 말 큰 홍수 피해를 입은 혜산시처럼 연이은 자연재해를 겪은 지역은 그나마 마련했던 구황 작물도 수급이 쉽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음.

뉴스1, "'100년만의 가뭄' 北 심각…식량공급 차질·내륙 피해집중", 2015.11.05.

◆ 북한의 2015년 대중 곡물 수입량, 전년대비 71% 감소

○ 북한이 2015년 중국에서 수입한 곡물과 비료의 양이 2014년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2월 2일 보도했음.

○ 방송은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이 중국의 세관 당국인 해관총서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인용해 북한이 2015년 1~10월 중국에서 수입한 옥수수, 쌀, 두류 등의 곡물량은 4만 2,000톤으로, 2014년 같은 기간(14만 4,000톤)보다 71% 줄었다고 전했음.

- 이 기간 곡물 수입액은 2,036만 달러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 72% 감소했음. 중국산 비료 수입량은 2014년(5만 4,646톤)보다 41% 감소한 3만 2,315톤으로 집계됐음.

○ 이 같은 수입량 감소에도 북한의 곡물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음.

- 권 원장은 "2015년 북한이 곡물을 많이 수입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지원도 많이 받지 않았어도 (곡물 가격이) 안정됐다"며 "이것은 시장이 북한 당국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라고 말했음.

세계일보, ""북한, 2015년 중국서 수입한 곡물량 작년 보다 71% 감소"", 2015.12.02.

◆ 유엔 FAO, 2015년 4분기에도 북한 '식량부족국가' 지정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재차 '식량부족국가'로 지정했다고 12월 4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음.

- RFA는 FAO의 2015년 4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이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포함됐다며 이같이 전했음.
- FAO의 보고서는 분기에 한 번씩 발표되며 북한은 매번 이 보고서에 식량부족국가로 이름을 올리고 있음.

○ FAO는 2015년 북한의 쌀과 옥수수 생산량이 쌀 약 190만 톤, 옥수수 약 246만 톤 등으로 2014년에 비해 약 18만 3,000톤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음.

- RFA는 "가뭄과 홍수로 2015년 작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며 "국제지원 감소로 2014년보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나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음.
- 이어 "북한 당국이 수입하거나 인도주의 국제지원으로 메워야 할 식량 부족량이 약 36만 톤"이라며 "현재 이에 절반도 못 미치는 14만 2,000톤을 확보하는데 그친 상태"라고 덧붙였음.

뉴스1, "유엔 FAO, 2015년 4분기에도 北 '식량부족국가' 지정", 2015.12.04.

3 농림수산 일반

◆ 남북, 10월 5일부터 7일 공동으로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

○ 남북은 10월 5일부터 7일까지 공동으로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를 실시할 예정임.

- 통일부에 따르면 10월 5일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관계자 등 10여 명이 방북해 젓나무잎응애 방제약품을 전달하고, 남북이 공동 방제작업을 실시할 계획임.
- 우리 측에서는 젓나무잎응애 살충제, 분무기, 방제소모품(마스크, 장갑, 방제복) 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고, 우리측 병해충방제 전문가가 피해지역에 대한 시범방제를 실시할 예정이임.

○ 이번 산림 방제 작업은 7월 29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금강산 지역 병해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이뤄지는 것임.

- 북측은 7월 중순 현대아산에 금강산 소나무 상당수가 누렇게 말라가고 있다며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공동조사를 제안했음. 이에 국립산림과학원과 수목보호협회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리측 조사단이 2박 3일간 내금강과 외금강, 고성읍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한 바 있음.
- 실태조사 결과 금강산 일대의 소나무가 이상 증상을 보인 원인은 전나무잎응애와 솔잎혹파리 등 두 가지로 확인됐음.

이데일리, "남북, 5~7일 공동으로 금강산 산림병해충 방제 작업", 2015.10.02.

◆ 금강산 소나무 1차 방제 마무리

○ 금강산 소나무에 발생한 병충해 피해에 대한 남북 1차 공동방제가 10월 7일 마무리됨.

- 남북은 7월 북측의 요청으로 금강산 일대의 소나무들에 대한 병충해 피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10월 5일부터 2박3일간 방제 작업을 진행했음.
- 이번 방제작업은 남북강원도협력협회 관계자 등 우리 측 산림 전문 인력 10여 명이 금강산 일대에서 북측과 함께 진행했음.

○ 방제 대상은 금강산 소나무에 발생한 '젓나무잎응애' 병충해 피해 수목들로 우리 측은 약품 및 물품 지원 및 시범 방제를 진행해 방제 노하우를 북측에 전수했음.

- 우리 측 인력의 철수 이후에도 북측은 자체적으로 젓나무잎응애에 대한 추가 방제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임.

○ 젓나무잎응애와 같이 발생한 '솔잎혹파리' 피해의 경우 특성상 2016년 봄철이 되야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져 2차 방제는 내년 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임.

○ 이번에 지원된 살충제와 분무기를 비롯한 방제소모품(마스크, 장갑, 방제복)등 1억 3,000만원 상당의 물품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을 통해 지원됐음.

뉴스1, "금강산 소나무 1차 방제 오늘 마무리…내년 봄 2차 방제", 2015.10.07.

◆ 북한, 산림·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

○ 북한 산림 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가 11월 3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월 4일 보도했음.

- 발표회에는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기상수문국과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종합대학, 여러 시, 군산림경영소 등의 일꾼들과 연구사, 기술자, 교원 등이 참석했음.

○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북한 특성에 맞는 나무심기와 관리방법을 완성하고 수림화, 원림화, 과수원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과학이론으로 논문들이 발표됐다고 통신은 전했음.

- 대기와 물의 오염을 막고 정화시설을 현대화하며, 전반적 생태환경을 잘 보호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반영한 논문들도 발표됐음.

○ 통신은 발표회에서는 '여름에 심은 나무들의 생존율에 미치는 몇 가지 약제처리의 영향', '계절에 관계없이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뿌리내림촉진제의 합성공정개선과 응용에 대한 연구' 등 10여건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음.

노컷뉴스, "北, 산림·환경보호부문 전국과학기술발표회 개최", 2015.11.04.

◆ 미국 NGO, 북한의 쌀 농업기술 지원성과 확인을 위해 전문가 파견

○ 미국의 비정부 구호단체인 미국친우봉사단은 쌀 증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농업전문가를 북한에 파견했다고 밝혔음.

- 이 단체의 북한 지원을 전담하는 중국 랴오닝성의 다롄 사무소 다니엘 야스퍼 아시아 지역국장은 "북한에 파견한 전문가가 다음 주 초까지 평안남도의 협력 농장에서 추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월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음.

○ 미국친우봉사단은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0년대 중반부터 북한을 지원한 구호단체로 최근에는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수해서 더 많은 쌀을 생산하도록 돕고 있음.

- 미국친우봉사단은 북한에 새로운 농사 기술을 전수하는 데 매년 약 4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

○ 야스퍼 국장은 "북한 당국도 새로운 모내기 법과 화학비료를 많이 쓰지 않아도 잘 자라는 종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면서 북한 전역으로 신농법을 전수할 계획"이라고 했음.

- 그는 "일명 '지속가능 뿌리 강화' 농법을 도입하고 플라스틱 육모상자를 사용한 것이 효과적이었다"면서 "평안남도 4개 협동 농장의 쌀 수확량이 이전보다 20%가량 늘었다"고 설명했음.

○ 태양열을 이용한 온실의 겨울철 농사법을 전수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는 평안남도의 4개 협동농장 대표들이 이 단체의 주선으로 중국에서 농업 기술 연수회에 참석하기도 했음.

노컷뉴스, "美 NGO, "北 쌀 생산 성과 확인차 전문가 파견"", 2015.11.06.

◆ 북한, 국가과학원 양어·축산업 먹이첨가제 개발

○ 북한에서 양어와 축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먹이첨가제를 개발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음.

- 북한 대외 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1월 15일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에서는 외국에서 수입하던 먹이첨가제를 개발·완성하고 생산 공정을 확립했다고 밝혔음.

○ 새로 개발된 먹이첨가제는 같은 양의 먹이를 가지고 물고기와 집짐승의 증체율을 높일 수 있는 반면에 사료단위를 기준보다 더 낮출 수 있게 한다며 경제적 효과성은 대단히 높다고 소개했음.

○ 또한 항산화능력이 대단히 높은 물질의 생성과 항체의 산생을 촉진시켜 물고기와 집짐승의 면역력을 훨씬 높여줄 수 있다고 했음.

○ 이밖에도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장내병원성균을 구제하고 면역기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먹이의 소화흡수율을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먹이첨가제들도 새로 개발했다고 이 매체는 덧붙였음.

노컷뉴스, "北 국가과학원 "양어·축산업 먹이첨가제 개발"", 2015.11.16.

◆ 북한,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 북한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72차전원회의 확대회의가 11월 25일 평양에서 진행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음.

- 이날 회의에는 농근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 중앙과 지방의 농근맹일군 등이 참가했음.

- 회의에서는 2016년 5월에 열리는 노동당 제7차대회를 앞두고 높은 사업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제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음.

○ 북한이 1946년 조직한 조선농업근로자동맹은 당의 외곽단체로 당의 방침에 따라 활동하고 있음.

- 30살 이상의 농축산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국 조직으로 주로 농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교양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노컷뉴스, "北, 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전원회의 확대회의 개최", 2015.11.26.

◆ 북한, 세포지구축산기지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도입

○ 북한이 조성하고 있는 최대축산단지인 강원도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에서 집짐승 배설물을 이용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도입에 성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음.

- 북한의 대외매체인 '조선의 오늘'은 11월 27일,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의 농업과학원 돌격대원들이 고리형순환생산체계를 연구 도입했다"고 말했음.
- 고리형순환생산체계는 집짐승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여기서 나오는 발효액과 찌끼로 남새재배, 양어, 버섯, 먹이풀 기르기, 축산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음.
- 이들이 연구·도입한 고리형순환생산체계에서 기본은 메탄가스생산공정으로 종전의 메탄가스생산방법과는 달리 메탄가스 발효탱크부터 합리적으로 설치했다고 했음.
- 땅속에 묻던 종전의 탱크설치방법과는 달리 발효탱크용 온실을 건설하고 그 안에 탱크를 설치하고 원료주입구와 발효액과 찌꺼기를 뽑는 출구를 따로 설치하는 방법으로 원료의 교체를 보다 손쉽게 하면서도 온도도 보장했다고 소개했음.
- 또 메탄가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며칠간 발효시킨 집짐승배설물과 태양열로 덥힌 물을 원료로 했으며, 이것들을 자주 뒤적여줄 수 있는 장치도 설치해 메탄가스 생산성도 높일 수 있게 했음.
- 현재 여기서 발생된 가스로는 새로 건설한 살림집들에서 전기도 생산하고 연료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질소와 인을 비롯한 영양원소가 많이 포함되고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되어 유기질비료 효과가 높다고 설명했음.
- 이밖에도 발효액에 의한 수경재배를 진행해 물 윗면에서는 채소생산, 아래에서는 양어를 할 수 있으며 밤에도 온실안의 온도를 높이고 양어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음.

○ 북한은 강원도 세포군, 평강군, 이천군 일대를 개간해 총 5만 수 천 정보의 방대한 목초

지를 조성한 뒤 소, 양, 염소, 돼지, 토끼, 오리 등을 길러 고기를 생산하는 축산기지를 건설하고 있음.

○ 북한은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돌까지 모든 건설을 끝내고 고기생산 목표는 2017년에 연간 5,000톤에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2020년에 연간 1만 톤을 생산할 계획이며, 여러 가지 고기가공품과 유제품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음.

노컷뉴스, "北, 세포지구축산기지 '고리형순환생산체계' 도입", 2015.11.28.

◆ 복합농촌단지 조성 방식 제안

○ 새마을운동을 접목한 복합농촌단지 조성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활개선을 위한 '민생통로'를 개척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음.

- 김관호 한국농어촌공사 북한농업센터 부센터장은 11월 3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중앙일보가 후원한 '2015 남북농업협력 심포지엄'에서 "복합농촌단지는 인도적 지원을 넘어 북한주민의 생활 속에 녹아드는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음.
- 김 부센터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개발을 위한 남북 공동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참여와 실천을 강조한 새마을 운동과 유사한 북한의 '사회적 참가에 의한 임농복합경영' 개념을 접목한 개발 전략"을 제시했음.

○ 남북농업협력의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도 나왔음.

- 정현출 농림축산식품부 과장은 "복한농촌단지는 북한지역의 2~3개 협동농장을 묶어 농업, 축산, 산림과 생활환경 및 보건의료분야를 패키지형으로 개발하는 것"이라면서 "북한농업의 자생력 확보, 남북간 교역 및 경협사업 등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음.

○ '남북농업협력을 통한 북한 복합농촌단지 조성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의 참석자들은 남북농업 협력의 실천적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음.

-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북한은 전체 인구 대비 3분의 1이 넘는 농촌인구가 유지되고 있지만 열악한 농업생산기반으로 인해 효율은 현저히 떨어진다"면서 "농업협력은 정치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적인 식량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지적했음.
- 남교수는 "통일 이후 성공적인 통합을 완성하기 위해 분단시기에 선행적으로 경제적 협력과 인적교류가 필요하다"면서 "남북농업협력으로 식량생산 및 농업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면 북한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주는 동시에 남북한 인적·물적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체제통합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음.

중앙일보, "새마을운동 접목한 복합농촌단지로 北 '민생통로' 개척하자", 2015.11.30.

◆ 북한, 협동농장 개혁 필요성 지적

○ 북한에서 농업 부문 조직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달아 나오고 있음.

○ 북한 경제학술 계간지 '경제연구' 2015년 4호(10월 30일 발행)는 '현시기 농업생산에 대한 지도를 개선 강화하는 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라는 글에서 농업 경영의 자율화·분권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음.

- 이 글은 "협동농장 관리운영에서 농업근로자대중의 단결과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와 요구, 해당 지대의 특성에 맞게 생산과 경영활동을 독자적·창의적으로 진행하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생산경영 활동에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업적 방법을 완성해야 한다"며 "구체적 실정을 잘 아는 농민들을 주인으로 내세우고 기업관리 운영사업을 책임적으로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음.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3호(7월 20일 발행)는 '현시기 농업 근로자의 생산적 열의를 높이는데 나서는 중요 문제'라는 글에서 "농업지도관리기구를 간소화하며 농촌사업 지도를 현실에 접근시킬 것이 요구된다"며 조직 개혁을 촉구했음.

- 이어 "협동농장 관리운영에 '민주주의'를 적극 발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영활동에 농장원대중을 참가시키고 관리일꾼들도 분조에 배속시켜 포전을 맡겨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 글에서 '농업지도관리기구'는 각 도의 농촌경리위원회나 시·군의 협동농장경영위원회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됨.

- 이에 대해 북한농업 전문가인 권태진 GS&J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농업관리조직의 비효율 및 비대화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누적된 것인데 관료조직에 눌려 비판이 제기되지 못하다 김정은 정권의 개혁 바람을 타고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분석했음.

연합뉴스, "北 협동농장 개혁 나서나…'관리기구 비효율' 잇단 지적", 2015.12.03.